8일 Market Index
코스피 2431.91 (-31.44)
코스닥 813.95 (-1.81)
금리(국고채 3년) 3.855 (+1.129)
환율(원·달러) 1321.40 (+22.00)

metro 경제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9일 목요일

[경제종합] LG전자 TV 신제품 10년 노하우 총 집약 OLED 한계 극복 03

문과생 취업 바늘구멍… 채용인원 70% 이공계생 뽑아

더 팍팍해진 취업시장

매출 500대 기업 절반 이상은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없어
채용시 67.5% '이공계생' 모집
대입 이어 취업도 '이과' 선호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대학입시에 이어 취업 시장에서도 '이과 선호'가 높아지면서 문과생들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인문계열 졸업자들은 전공과 깊은 관련이 없더라도 기업의 니즈를 맞추고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들, 뚜렷한 이과 선호… 문과생은 '아등바등'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어요."

한국외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송모(27)씨는 "문과생들의 능력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공계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과 선호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석·박사급의 고급 인재가 됐을 경우, 경쟁률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지식을 쌓아 몸값을 올리겠다는 의미다.

반면, 공대 졸업을 앞둔 정모(25)씨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다. 그는 "지금은 창업(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고, 잘못되더라도 컴퓨터 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취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막하지는 않다"며 "다만 경제 불황에 따라 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게 맞나라는 불안감은 있다"고 답했다.

8일 취업 시장에 따르면 올해 채용 부진과 이공계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문과생들의 취업길은 더욱 좁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 인원 10명 중 7명(67.5%)은 '이공계열' 졸업자 자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기존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대기업의 절반 이상(54.8%)은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 역시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활발히 진행하는 모습으로 경영 불확실성의 증가, 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에 따라 고용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커리어매칭 플랫폼 사람인HR 관계자는 "2022년 사람인의 직무별 공고(수요) 대비 지원자수(공급) 충원율을 보면, IT개발·데이터 직무가 41.8%로 가장 지원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로로 IT, 반도체, 2차전지 등 이공계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사무자동화로 인해 문과직무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구직자들도 이런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말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7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문·사회계열 구직자는 절반(49.8%)이 본인의 전공을 후회한다고 답한 반면 IT·공학계열과 이·화학계열은 각각 30.7%, 32.4%에 그쳐 격차가 컸다.

청년층의 고용 침체 분위기와 더불어 이과 선호 흐름까지 겹쳐 문과생들의 취업 이중고를 타개하는 뾰족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스갯소리로 나오던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긴축효과 못 느껴" 파월 '빅스텝' 예고 韓 금리 더 오르나

"긴축정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종 금리수준은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각)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1년간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4.50~4.75%로 상단기준 4.5%포인트(p)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보기 위해 지난 2월 금리인상폭을 0.25%p로 낮췄지만 경제지표에 변동이 없어 기준금리 인상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美 연준 의장 통화정책 보고
22일 0.5%p 금리인상 가능성
최종금리 6%까지 오를수도
금리차 우려에 한은, 고민 ⬆

◆ 미국, 최종금리 6% 전망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99.17로 1년전과 비교해 6.4% 올랐다. 지난해 6월 9.1%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월 8.2%, 12월 6.5%까지 내려왔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낮추기 위해 1년간 금리를 4.5%p 인상했지만 눈에 띄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불과 한달 전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추세가 1월 경제지표에서 부분적으로 역전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긴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시카고 페드워치를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69.8%가 몰렸다.

최종금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제한적으로 통화정책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며 "최종적인 금리가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與 신임대표에 김기현 "오로지 민생만 보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득표율 52.93%로 과반 넘어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 이끌것"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를 열고, 김기현 의원이 83만7236명 선거인단 가운데 24만4163표(52.93%)로 과반 득표해 당 대표로 당선됐다고 선포했다.

그 뒤를 이어 안철수(10만7803표, 24.37%), 천하람(6만9122표 14.98%), 황교안(4만222표, 8.72%)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당 대표 경선 투표율은 55.1%를 기록했다.

신임 김기현 당 대표는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고 당선 연설을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원 동지와 한 몸이 돼 민생을 살려내고,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의 국민의힘을 만들자"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재원 후보가 16만67표(17.5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병민(14만6798표, 16.1%)·조수진(12만173표, 13.18%)·태영호(11만9표, 13.11%) 후보 순으로 당선됐다. 최고위원 경선 투표율은 54.95%를 기록했다.

청년 최고위원은 장예찬 후보가 25만36표(55.15%)를 얻어 당선됐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 투표율은 54.59%를 기록했다.

이번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로 이뤄졌다. 최종 투표율은 55.1%(83만7236명 중 46만1313명 투표)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는 7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며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하고, 노조 회계 불투명, 산업현장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제관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버스티비 JTBC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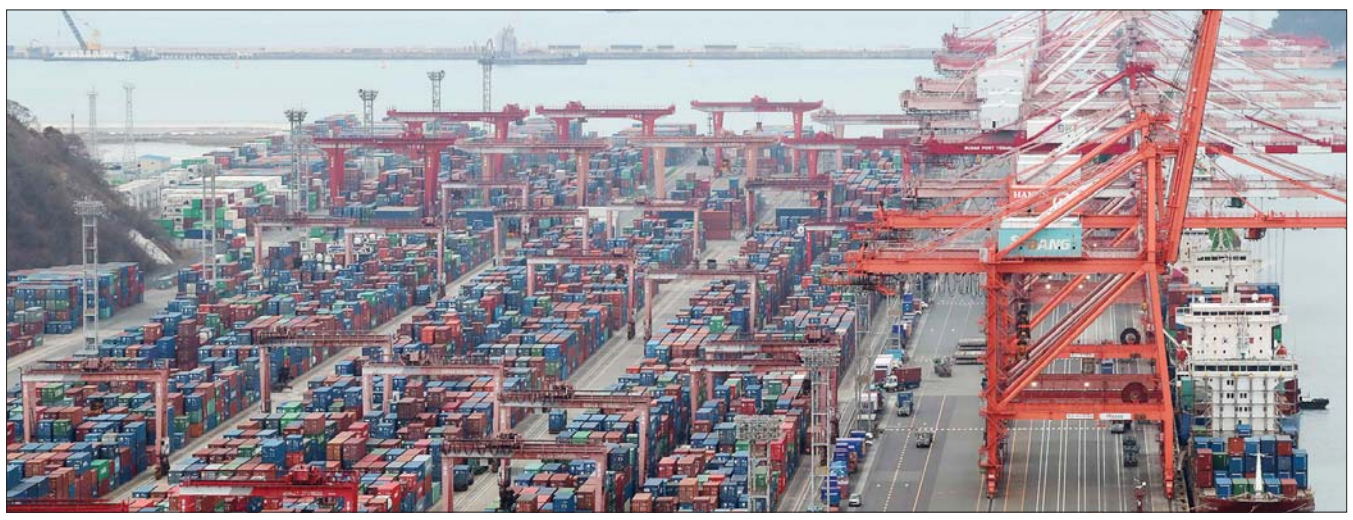
▲ 野 외통위원 "강제동원 피해자 모욕, 석동현 즉각 파면"
▲ 尹대통령 "국민 체감할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 지시 /사진 뉴시스

▲ 이재명 등 지도부, 11일 대일 굴욕외교 규탄 촛불집회 참석
▲ 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이행상황 격주 점검

▲ 이재명, 여성의 날에 "위안부 할머님께 부끄러워… 尹, 日에 면죄부" /사진 뉴시스
▲ 튀르키예 구호대 3진 파견… 1000만 달러 재원

“수출·내수 둔화에 경기부진 지속… 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

KDI, 3월 경제동향
“경기 내려온 상태서 유지되는 중”
세계경기 둔화에 2월 수출 -15.9%
반도체 영향 1월 산업생산 0.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 경제동향을 통해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로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시스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로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진단이 나왔다. 수출 감소에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마저 둔화하고 있어서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도 아직 국내 경기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8일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며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 달 우리 경기의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달에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다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에는 경기가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내려온 상태에서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월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5.9%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이 급감하고,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도 0.8% 감소했다. 광공업 부진 영향이 컸는데 반도체(-33.9%)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0.9%로 낮아진 반면, 재고율은 120.0%로 높아졌다.

KDI는 또,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일부 심리지표가 개선됐지만 실물 경기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2월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중국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달 72에서 74로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BSI는 65로 전월(66)보다 낮아졌다. BSI는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정적 응답이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부진한 모습이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같은 달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3.9% 감소하고, 건설기성은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가 둔화되며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열달 만에 5%대 상승세를 마감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측 물가 압력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내수 둔화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정 실장은 “중국 리오프닝이 실물 경기에 반영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지금 당장 경기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용접 등 뿌리산업 3년 근속시 1800만원 준다

정부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
해외 건설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
법인택시 ‘선 운행, 후 자격’ 취득 추진

청년이 용접 등 뿌리산업에서 3년 일하면 정부가 1800만원 자산을 만들어 준다. 해외건설 근로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법인택시는 ‘선(先) 운행, 후(後) 자격’ 취득이 추진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 승합차·고급 택시로 전환할 때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6개 업종별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지라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먼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우수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주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운송업은 택시기사들이 이직이 잦다는 점을 고려, ‘선 운행 후 자격 취득’이 추진된다.

운전적성검사, 택시운전자격시험, 신규자 교육을 취업 후 3개월 내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형택시에서 대형 승합·고급 택시로 전환 절차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건설업은 해외 오지에 장기간 파견 근무 간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 업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정부는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원·하청 격차 완화 등 뿌리 깊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선다. 조선업은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 등 조선업 상생협약을 맺고, 인력 유입-유지-양성 목적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물류·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기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도 늘린다. 인력난이 심한 상·하차 업무, 분류 업무에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외국인력(E-9)은 올해 쿼터를 11만명으로 늘려 월평균 1만명씩 신속 입국을 추진한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취업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인력을 농촌에 알선한다. 농촌으로 가는 구직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 등 직접 일자리에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 채용한다. 이 중 92만4000명 이상을 올 1분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1면 ‘문과생 취업 바늘구멍’서 계속

초등수학 집중반 개설 등 학원가도 ‘수학’ 잡기 나서

◆취업 기회, 대입에 영향… 학원가도 ‘수학’ 잡기

대입은 취업과 직결되는 만큼 이과 강세에 따른 학원가 수학 집중도도 주목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key’는 수학으로 꼽히면서 국어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수학 등급이 높을 경우 유리한 구조를 보였다.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도 ‘초등 수학 집중반’ 개설이 잇따르는 등 ‘수학’ 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입시 전문 업체인 이투스에듀도 지난 1월 청솔학원과 강남하이퍼학원 주요 직영점에 수학전문관을 개설했다. 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문의나 접수가 제법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하은기자 godhe@

“10년 노하우 총 집약… 잔상·번인 등 OLED 한계 극복”

LG전자 TV 신제품 발표회

‘싱크 투 유, 오픈 투 올’ 슬로건 공개
M시리즈 추가, 첫 97형 출시 예정
웹 OS 업그레이드… 편의성 강화

LG전자는 8일 서울 서초R&D 캠퍼스에서 2023년형 LG TV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새로운 슬로건 ‘싱크 투 유, 오픈 투 올’을 공개했다.(왼쪽부터) 백선필 HE상품기획담당(상무), 정재철 HE연구소장(전무), 조병하 HE플랫폼사업담당(전무), 김선형 한국HE마케팅담당(상무)

LG 시그니처 올레드 M /LG전자

“올레드(OLED) TV는 LG입니다.”

LG 전자가 OLED TV로 기술 혁신을 이어간다. 10년간 꿋꿋이 쌓아온 OLED TV 노하우를 활용해 압도적인 ‘F.U.N’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프리미엄 시장 대세로 자리잡은 OLED TV는 경쟁사들도 앞다퉈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LG전자는 8일 서울 서초R&D 캠퍼스에서 2023년형 LG TV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 2013년 처음 올레드 TV를 발표했던 장소에 10년만에 돌아와 시장을 개척한 성과를 기념했다. 새로운 슬로건 ‘싱크 투 유, 오픈 투 올’을 공개하며 올레드 TV가 나아갈 미래도 제시했다.

◆ 하드웨어로 ‘싱크 투 유’

LG전자는 이번 신제품으로 소비자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탁월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일단 라인업을 더욱 확대했다. 올레드 TV는 지난해 40형대 제품과 함께 구부러지는 ‘플렉스’를 선보인데 이어, 올해에는 OLED TV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97형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롤러블 TV인 R은 물론 지난 CES2023에서 혁신상을 받았던 연결선 없는 M시리즈도 새로 추가하며 29개 모델로 늘렸다.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도 그대로 이어간다. 스탠바이 미를 비롯해 벽에 기대어 놓고 화면 노출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포제 등으로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G전자는 10주년을 맞은 올레드 TV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며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올레드 에보 라인업에 빛을 극대화하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MLA)를 사용한 ‘밝기 향상 기술’을 적용해 조도를 최대 70% 씩이나 밝게 만들었다. 빛 반사와 화면 비침 현상도 줄였다. 그러면서도 전력 소모나 내구성은 더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OLED TV 한계인 잔상, 번인으로 흔히 불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패널 뿐 아니라 여러 부품 소재를 교체하고 효율을 극대화, 그리고 고유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잔상 현상을 거의 해결했다는 것.

핵심 기술은 10년 ‘노하우’로 만들었다. 시행 착오를 거듭하며 소재를 최적화하고, 수많은 사용 데이터를 축적해 잔상이 발생하지 않는 화질 최적화 방안을 고안해냈다. 이를 통해 적용한 기술이 10가지 이상이라며, 경쟁사들과 분명히 차별화했다고 강조했다.

LG전자 HE연구소장 정재철 전무는 “OLED TV 잔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소비자가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경쟁사들이 10년간 데이터를 축적한 LG전자를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올레드 TV 10년 노하우는 알파9 6세대에 녹였다. 알파9은 올레드 TV 전용 프로세서로, 10년간 6세대에 걸쳐 성능 개선을 거듭해 올레드 TV 단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음향도 강화했다.

◆ 웹OS로 ‘오픈 투 올’

LG 올레드 TV는 하드웨어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웹OS도 핵심 기능을 맡고 있다. 영상이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홈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LG전자 사업적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미래 먹거리기도 하다.

LG전자는 신형 TV에 웹OS23으로 업그레이드하며 모두가 함께 TV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인 취향에 따라 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TV를 켜면 방송이 아닌 홈 화면부터 출력, 계정을 선택해 나만의 화면을 구성하는 ‘마이홈’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홈은 계정에 따라 완벽하게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관련 내용을 골라 보는 ‘퀵 카드’와 함께, 시청 내역과 검색 목록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하는 AI 컨시어지가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365 등 콘텐츠를 사용해 TV만으로 업무를 할 수도 있다. ‘맞춤 화면 설정’을 작동하면 6단계에 걸쳐 화질을 선택해 선호하는 화질도 골라준다.

TV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위해 접근성도 크게 강화했다. 리모컨 배우기 기능과 함께 접근성 기능을 선택하면 스스로 음성 안내를 병행하고, 수어 화면 크기도 크게 키울 수 있다.

LG전자는 과감하게 생태계도 개방했다. 웹OS를 지원하는 OTT 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에어플레이2와 함께 ‘미러 캐스트’를 통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쉽게 미러링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홈도 LG전자가 운영하는 씽큐는 물론 웹OS를 지원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IoT 표준인 매터 규격으로 아마존 알렉사와 애플 홈킷을 사용 가능하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장중심 혁신 드라이브… ‘국내영업·기업투자금융’ 신설

우리금융그룹 조직·인사 개편

임종룡 회장 체제 청사진 드러나
이원덕 우리은행장 후임 이목집중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우리금융그룹이 대대적인 조직 및 인사 개편을 단행하면서 임종룡 회장 체제의 막이 올랐다. NH농협회장과 금융위원장 시절에도 ‘현장’을 중요시한 만큼 후임 우리은행장 역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부상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전날 자회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자회사 14곳 중 은행 포함 9곳의 최고경영자(CEO)를 전면 교체했다.

이들 CEO는 오는 22~23일 각사 주주총회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 각 자회사는 신임 대표가 부임하는 즉시 지주사의 기본 전략에 맞춰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임 내정자는 지난 2013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첫인사에서 지주·계열사 임원 15명 중 11명을 교체하면서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쇄신이란 이슈도 걸려 있는 만큼 ‘대거교체’를 통해 조기 경영 안정과 내·외부 분위기 쇄신에 나서려는 포석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19그룹 7본부 83부서’에서 ‘2부문 21그룹 5본부 83부서’ 체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국내영업부문과 기업투자금융부문을 신설해 산하에 각 5개, 4개의 주요 영업 관련 그룹들을 배치했다.

대신 기존에 은행 영업을 기획·총괄하던 영업총괄그룹을 폐지해 각 부문장의 책임경영 권한을 강화했다.

은행 고객을 개인과 기업으로 나눠 각 영업 조직을 그 안에 포함시켜 총괄하도록 한 것은 임 내정자가 영업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 내정자는 지난달 지주사와 자회사 업무보고를 받고, 영업 현장 점검을 통해 본격적인 취임 준비에 착수했다.

임 내정자는 NH농협금융 회장과 금융위원장 시절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취임 전 이례적으로 지점을 방문해 영업점 직원 등과 소통하면서 현장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효과적인 방법을 1순위로 생각하기 위해서다. 전날 인사 역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 배치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원덕 우리은행장 후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금융 핵심 자회사로 비중이 가장 크고 임 내정자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만큼 외부 보단 내부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선임될 것이란 관측이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장과 김종득 우리종금 대표,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날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현장 경험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 개혁의 촉매제가 될 과감한 경영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한 만큼 주총 이후 신임 회장이 그려온 경영 로드맵대로 빠르게 영업 속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美 빅스텝땐 韓 1.75% 차이… 업계, 4월 금리인상 전망

›› 1면 ‘긴축효과 못 느껴…’서 계속

지난해 12월 FOMC는 최종금리를 5.1%(5~5.25%, 중간값 5.1%) 로 제시했다. 올해 5% 중반을 넘어 6%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 최종금리 4% 전망

“안개가 가득할 때는 차를 세우고 지켜보는 것이 낫다.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이 같이 말했다. 1년반 동안 기준금리를 3%p가량 인상한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의 통화정책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0.38로 1년전과 비교해 4.8% 상승했다. 지난해 6월 6%까지 오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월 5.6%, 12월 5%대에 머무르다 1월 4%대에 진입했다. 이 총재는 “3월 이후 물가가 4.5% 이하로 내려가고, 연말에는 3% 초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예상보다 길어진 미국의 통화정책은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4.75%로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1.25%p 높다. 연준이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면 한미금리차는 1.75%까지 벌어진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국내증시와 채권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달러강세로 수입품목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에도 반영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이상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만19~34세, 5년간 매월 70만원 넣으면 5000만원 '목돈'

尹 공약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대상자

정부 매월 2.1만원~2.4만원 기여금 구간별 소득 낮을수록 많은 지원 병역이행 기간, 나이 계산 미산입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청년들은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서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겐 정부가 매달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까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출시 될 수 있도록 취급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겐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에는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해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이하		-	-	-

자료/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나 만기 후 가입"

금융위 일문일답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나온다.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8만8000원을 지원 받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300만명의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질의응답.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올해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 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나 만기 후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 가능한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나?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부자는 '홍콩'을 좋아해… 초고액자산가 1.5만명 거주

차이나 뉴스&리포트

슈퍼리치 가장 많이 사는 곳 '홍콩' 아시아 1위, 전세계 3위

아시아에서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홍콩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베이징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8일 글로벌 인력정보업체 알트라타(Altrata)에 따르면 홍콩에는 순자산 미화 3000만달러(한화 약 39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UHNW) 1만517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가장 많다.

아시아 2위는 베이징으로 슈퍼리치 8923명이 거주했으며, 싱가포르는 7471명으로 3위로 밀렸다.

이번 조사는 세계 각지의 슈퍼리치를 거주지별로 계산한 웰스(Wealth)-X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전 세계 인구 80억명 가운데 약 40만명만이 초고액자산가 그룹에 속했다.

홍콩 빅토리아 하버. 홍콩은 아시아에서 초고액자산가(UHNW)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 1위를 차지했다. /AP·뉴시스

전 세계에서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뉴욕으로 2만1714명이며, 런던이 1만590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1위 홍콩이 전 세계 기준으로는 3위로 런던을 바짝 뒤쫓았다.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불확실성과 팬데믹으로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홍콩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슈퍼리치가 살기 가장 좋은 도시다.

알트라타는 "홍콩은 중국 본토와의 연결성이 독보적이고, 초고액자산가들에게는 낮은 세금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이점도 크게 작용했다"며 "홍콩 거주자 351명당 1명이 슈퍼리치로 밀도로만 보면 뉴욕보다 3배가 넘는 세계 최고 부자 도시"라고 설명했다.

홍콩은 방역정책 완화 이후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7년 동안 거주하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때 내야 했던 부가 세금을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대거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년 소득이 250만 홍콩달러(한화 약 4억2000만원)인 개인과 최소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세계 100대 대학 졸업생에게는 2년 짜리 취업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미국 도시들이 상위 20위권을 장악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의 중심지로 꼽히며 뉴욕 외에도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野 공조 '쌍특검' 속도내나

이정미 대표 "검찰, 수사의지 없어 국회 권한으로 특별검사법 추진"

민주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정의당, 패스트트랙 추진엔 반발 쌍특검 추진 공조에 양 당 입장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대장동 50억 클럽'까지 포함한 이른바 쌍 특검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쌍 특검 추진에 반발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구나, 그렇다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이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범죄 행위로 밝혀졌기에 즉각적인 검찰 수사 촉구를 요구했던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저께(6일) 정의당 의원단 6명 전원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검찰청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공조로 이른바 쌍 특검이 추진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쌍 특검 추진 방식부터 수사 대상까지 양당 입장이 달라서다.

정의당은 이른바 쌍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데 반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정의당 입장은 공정한 수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결과물 도출을 갖고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에 규정한 수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장차가 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돈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 수사 대상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주가 조작·허위 경력·뇌물성 협찬 의혹까지 포함했다. 정의당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만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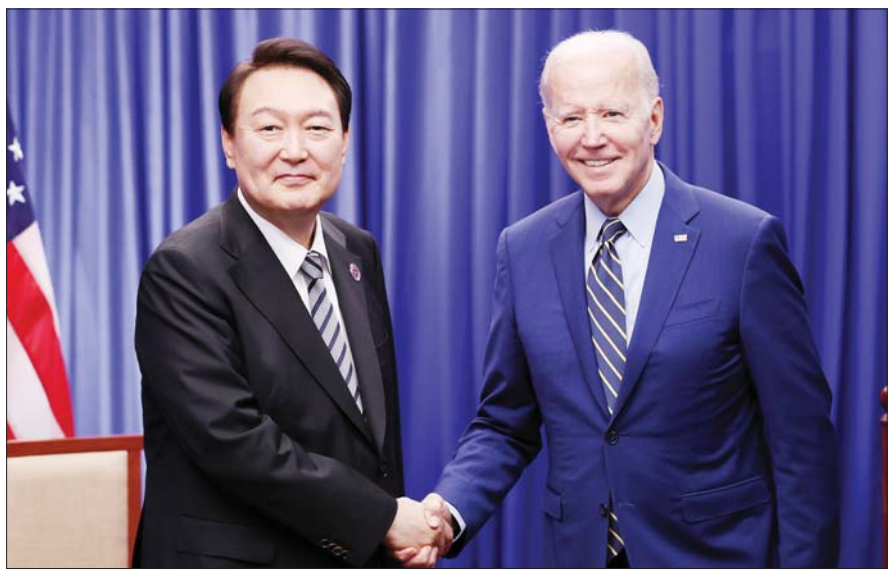
한편 국민의힘은 8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 추진에 나선 민주당과 정의당을 두고 "명분도 없고 민심도 없는 쌍특검을 국민들에게 들이대려면 다음 총선에서 쌍코피 터질 각오쯤은 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른바 쌍 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이 일상이 된 특검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들으면 '쌍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혀를 찰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0억 클럽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도 모두 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마쳤다.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던 사건들"이라며 특검 추진 명분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尹, 내달 말 美 국빈방문… 대북 핵 억제 강화

韓 대통령, 12년 만에 국빈방문 김성한 실장 "70년동맹 성과 짚고 향후 발전방향·세부내용 구체화"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말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7번째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2번째 국빈방문이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전날(7일) 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을 통해 동시에 발표됐으며 국빈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정해졌다.

김 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최단기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형성된 각별한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 아래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이를 토대로 국빈 방미 기간에 각 분야에서 실질적·구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실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의 핵 능력이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절차를 제도화하자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한국 내 우려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산업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계속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尹 정권의 노동자, 국민 아닌 착취 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들은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주 69시간 근무, 노동자·기업 동반성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부가 '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도록 노동 시간 선택 폭을 넓힌 데 대해 노동계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노동 시간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은 8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 시간 개편안에 대해 "이 법안은 노동자나 기업이 동시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 문화를 선진적으로 바꿔가기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나 야권에서 노동시간 개편안을 반대하는 게) 지속적인 69시간 업무로 노동착취 아니냐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나 노동자 여건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혜택을 보는 기업에 의해 (노동) 문화가 새롭게 정립돼 확산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 시간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설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연속해서 11시간은 의무 휴식을 하도록 해 다 맞춘 것"이라며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영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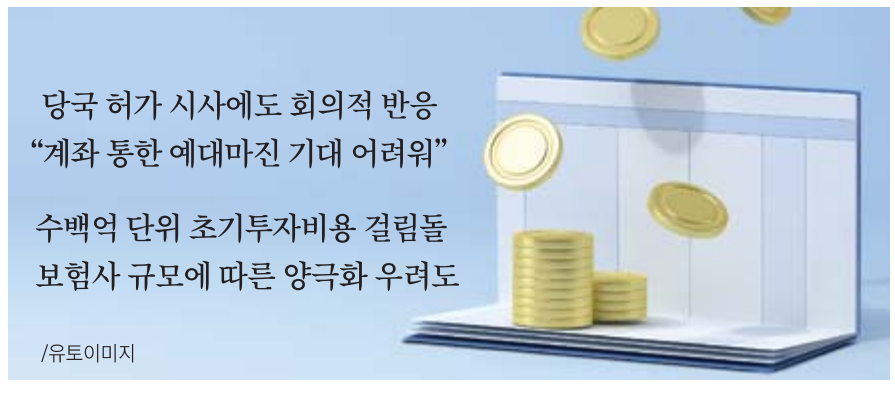
보험업계, 종지업 진출 시큰둥… "활용법·수익성 제한적"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라이선스 허가를 시사했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보험사가 종지업에 진출해도 한계가 뚜렷해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를 위해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지업 허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업무영역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종지업이란 '계좌 개설권'으로도 불린다. 은행 이외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좌 개설 권한을 부여해 간편결제, 송금 등 전자금융업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납입, 청구 등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정작 보험업계는 종지업 허가 가능성



/유토이미지

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결제업무와 밀접한 카드사의 경우 리워드 혜택 강화 등 경쟁력 제고의 여지가 있지만 보험업의 경우 활용방안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기 개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마땅한 활용방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종지업은 계좌 개설을 통한 송금, 이체 기능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계좌를 통해 수신한 자금을 운용하거나 예대마진을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보험금 수령 및 납부 이외의 기능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초기투자비용 또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종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결제 시스템 구축은 물론 결제망, 보안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초기 비용만 수백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중소손보사의 역대급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 선임을 감안하면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고, 중소보험사는 사실상 종지업 진출이 어렵다"면서 "과거 보험사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마찬가지로 유행처럼 번지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사 통장' 개설 명분에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각 사별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간소화하고 있다. 올해도 보험업권이 디지털 전환에 몰두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은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또한 계좌 연동을 통해 자동납부 할 수 있어 보험사 통장의 필요성이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에 종지업라이선스를 주면 보험사 규모별로 양극화를 예상하고 있다. 대형보험사가 선제적으로 도입하면 중소손보사들 또한 무리해서라도 따라가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통장을 만들어봤자 소비자,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한정될 것"이라며 "직원들 월급통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예금보험 3.0 통해 미래금융 대응… 보호 한도·대상 확대"

유재훈 예보 사장 간담회

취임 100일 맞아… 미래비전 제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법제화 최선"

"금융사고 이후 대응에만 집중하는 예금보험 제도로는 미래의 금융 리스크에 대처할 수 없다. 예금보험 3.0으로 미래의 금융환경에 대응해 나가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예금보험 1.0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통해 부실을 정리한 기간, 예금보험 2.0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보기금 내 은행·증권·보험 타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비용을 차입한 기간이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공적자금이나 타 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이 덜했다"며 "예금보험 3.0을 통해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위기 이후보다 이전에 예방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보제도기능 고도화 ▲금융상품 보호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예보제도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투자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하는 제도다.

유 사장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올리기 위해선 해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예금된 금융자산의 크기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사실상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재계산 되어야 한다"며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 적당한 예금보험한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외부용역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8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보호범위도 확대한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이 예금보호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시 유가증권 손실보호와 불완전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은 2010년 1161조원에서 2884조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금융투자업체 자산도 같은 기간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원금보장의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와 예보아카데미 등을 통해 예보만의 차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유 사장은 올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법제화에 노력한다. 그는 "현재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금융시장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상환기금과 저축은행특별계정의 종료가 각각 2026~2027년에 이뤄지는 만큼 잔여재산 배분방안도 모색한다. 연금저축이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검사·조사 제도를 운영한다. 위법·위규사항 점검이 주가 되는 금융감독기구와 달리 그간 축적된 공동검사, 단독검사를 통해 예보 고유의 조사 관점과 기법을 구축한다.

유 사장은 "이밖에도 서울보증 등 잔여자산을 차질없이 매각하고, MG손보 등에 대한 정리절차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캄보디아 은닉자산을 회수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추적·회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h수협은행

2000억 규모 유상증자 완료

금융지주사 전환 위한 자금확보

Sh수협은행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금확보에 나섰다.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출자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에 따라 수협은행의 총자본비율은 기존 13.9%에서 14.6%로 개선될 예정이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와의 공적자금 상환합의서에 따라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면서 자본적정성 개선에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은 "이번 2000억원 유상증자를 계기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기반 마련은 물론 미래대응 조직체계 구축, 전사적 디지털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해 자생력을 갖춘 강한 은행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신보-하나은행

수출입기업 금융지원 맞손

'수출입PLUS 보증료 지원 보증' 출시

신용보증기금은 하나은행과 손잡고 '수출입PLUS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30만달러 이상 수출입 실적을 보유하고 하나은행의 신용등급이 B2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해당 기업에 최대 15억원의 보증부대출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이 출연한 보증료 지원금 20억원을 활용해 최초 2년간 연 0.5%포인트(p)의 보증료를 차감 지원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금리 감면과 수수료 우대 외에도 보증부대출 금액의 30% 이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이복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은행 역할 중요"

〈금감원장〉

'지역사회-지방은행 동행' 간담회 참석

금융당국이 최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을 예고한 데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산은행을 직접 방문하며 지방은행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사회-지방은행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산업계 대표와 상인·소상공인 등 부산·경남지역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부산은행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사회-지방은행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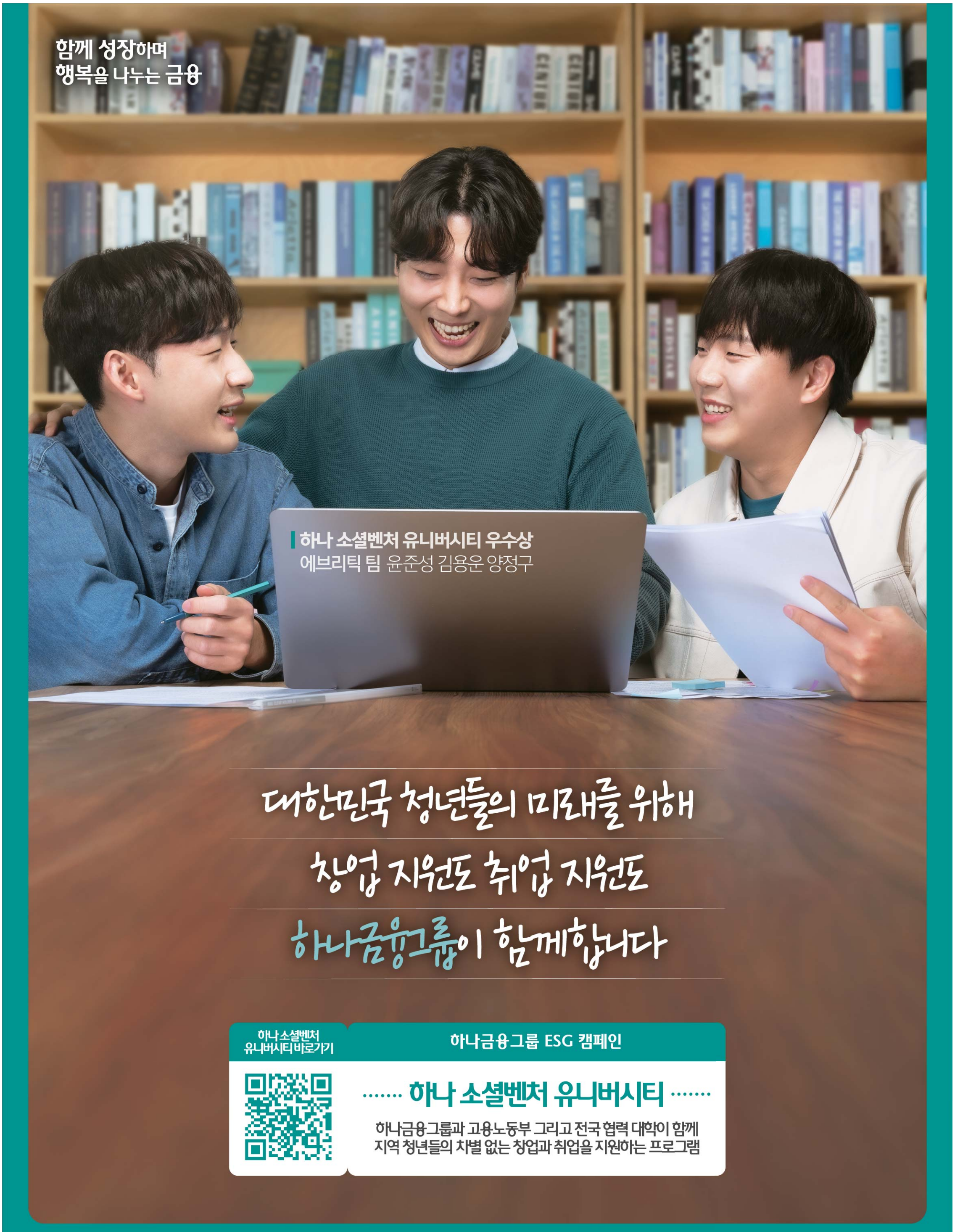
가계대출 전 상품 금리인하, 저신용 차주 기존 대출 금리 감면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역사회 동반성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 주도의 지원 대책만으로는 최근 경기침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경제에 기반하는 지방은행이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따뜻한 금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부산역에 위치한 'D-camp부산라운지'를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을 격려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소비자

“항공권 가격 비싸” vs “수요·공급 측면 정상”

항공업계

항공권 가격 체감 설문조사
응답자 10명중 7명 “비싸다”

日 항공권 인기 시간대 80만원
LCC 조차 40만원 이하 없어
“이르면 2분기 해소 가능성”

출국 인파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전경 /뉴시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반면 치솟은 항공권 가격에 여행갈 엄두가 안 난다는 소비자들도 많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항공사들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운임”이라며 폭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여행객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과 한국항공협회에 통계에 의하면 올 1월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 여객은 461만 1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1월보다 1187% 증가한 수치다. 아직 코로나19가 퍼지기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회복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운항률도 70%가량 회복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하늘길 뚫려도 비싸서 못 간다”는 소비자들이 다수다. 여행플랫폼 ‘여기어때’가 지난달 진행한 아시아 여행 경비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1.5%)이 현재 체감 항공권 가격을 ‘비싸다’고 답했다. 다만 항공권과 숙박의 체감 경비가 높아도 10명 중 6명(59.2%)은 ‘일단 떠나겠다’고 응답해 해외여행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으로 떠나는 항공권 가격은 작년 말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상태다. 11월 경 주말기준 20~30만원으로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도시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같은 주말 기준 아침 8시에 탑승해야 30만원 후반대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 조차도 40만원 이하의 항공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40만원 이하는 비선호 시간대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인기 시간대에는 80만원 초까지 가격이 상승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LCC들에게도 사정은 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운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항공 운항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억눌렸던 여행심리가 한 번에 폭발해 지금의 공급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LCC 관계자는 “이미 작년 3, 4분기에 올해 1분기 겨울 여행을 예비해둔 고객들이 저렴한 표를 구매했기에 남은 표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것만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며 “대형항공사들과 가격 역전을 이룬 것도 몇 건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 더 주목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CC들도 국내선을 줄이면서까지 증편에 나서고는 있지만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해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1분기 동안은 이어질 전망이지만 업계에서는 학생들의 개학과 항공편 공급 확대로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LCC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방학 시즌과 겨울 여행객들의 수요가 몰린 감이 없잖아 있다”며 “이르면 2분기에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화큐셀, 발전량 예측 통해 분산에너지 선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 개시
노하우·영업망 활용 발전소 모집

한화큐셀 진천공장 주차장(왼쪽)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 설치된 대표적 분산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발전소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을 시작하는 등 국내 분산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정확도 높은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을 최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모집한 발전소의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해 전력거래소에 제출하고 예측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받아 발전사업자들에게 분배한다. 예측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은 전력판매 수익 외에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전력거래소 등은 전력계통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예측해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분산에너지가 연계된 전력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시행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발전량 예측이 정확할수록 많은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지난 1월 실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 시험을 높은 정확도로 통과해 발전사업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정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생에너지 사업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발전소 모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집을 본격화한 지 약 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말 전력거래소의 사업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도 경쟁사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소를 추가 모집해 나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3

디지털 공정 솔루션·성공 노하우 전수

LS일렉트릭 국내 최대규모 부스
델타로봇, 디지털 트윈 등 전시

LS일렉트릭이 미래 공장을 소개한다.

LS일렉트릭은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210㎡로 부스를 조성했다. 디지털 매뉴팩처링을 콘셉트로 기기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디지털화된 자동화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LV(저압) 드라이브 신제품 ‘S30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화되는 산업안전에 대비한 ‘안전 솔루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조·물류 공정을 구현하는 ‘델타로봇’과 ‘무빙마그넷’,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등 자동화 솔루션을 전시한다..

아울러 부스에 별도 세미나 공간을 마련해 엣지 허브와 덱사, 보안프로그램 등 디지털 공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성공 사례도 소개한다.

특히 국내 최초의 오픈형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인 테크스퀘어 전담 사업팀이 스마트공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4년 간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 경험 사례와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juk@

LS일렉트릭 부스 전경

삼성 19개社, 대규모 신입 공채 시작

삼성커리어스 홈페이지 ‘지원서’
GSAT 등 역량 테스트 거쳐 선발

삼성이 어려움 속에서도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삼성은 8일부터 관계사별로 채용 공고를 내고 2023년 상반기 공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판매 등 19개사에서 실시한다.

이번 공채는 삼성커리어스 홈페이지에서 15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직무적합성평가(3월) ▲삼성직무적성검사(4월) ▲면접 전형(5월) ▲채용 건강검진(6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Global Samsung Aptitude Test)는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S/W 개발 직군 지원자들은 직무적성검사 대신 주어진 문제를 직접 코딩하는 ’S/W 역량 테스트‘를 거쳐 선발한다. 디자인 직군 지원자들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디자인 역량을 평가한다.

한편 삼성은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를 유지하고 있다. 1957년 국내 최초 공채를 실시하고 1993년 처음으로 여성 신입사원 대상, 1995년에는 남녀 공채를 통합하고 학력을 제외하는 등 공채 제도 시작과 발전을 함께해왔다. 남녀 모두에 해외 지역 전문가와 주재원 파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양성 평등에도 앞장섰다.

그 밖에도 삼성은 청년들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재웅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로봇운송, AI 확인… 미래 산업현장 구현

CJ올리브네트웍스
AI 예지보전, AI 비전검사 등
스마트통합 물류 솔루션 전시

CJ올리브네트웍스가 ‘2023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산업전’에 스마트팩토리 및 물류 솔루션을 선보이며 미래 제조 산업현장의 모습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전시장 내 스마트물류 특별관에서 ▲제조현장에서의 최적의 운영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국내최고 물류 기업의 IT서비스 운영 노하우로 탄생한 ‘스마트통합 물류 솔루션 및 자동화 설비’ ▲신기술을 활용한 ‘AI 예지보전, AI 비전 검사’ 솔루션 등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제안하는 미래형 물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물류 창고에서 로봇이 제품을 운송하고 AI 비전 기술로 제품의 정보를 정확히 인식한 뒤, 컨베이어 벨트로 최종 운반 지점까지 자동화로 구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차체 키우고 첨단기술 대거 탑재… 1세대 결점 완벽 보완

YG의 카톡 car talk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소비자 분석 통해 편의성 강화
전장 145㎜, 휠베이스 60㎜ ⬆
적재 공간도 30% 이상 늘어나
동급 최고수준의 공간성 확보
ADAS 탑재로 운전자 피로도 ⬇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

디 올 뉴 코나 실내모습.

'정의선의 차 '로 불리며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나가 새롭게 돌아왔다.

2017년 출시된 코나는 정의선 당시 부회장이 차량 개발을 진두지휘했으며 첫 선을 보이는 날엔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특설 무데에 직접올라 "철저한 소비자 분석을 통해 내놓은 작지만 단단한 자동차"라고 소개했다.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던 모델이다. 이번에 2세대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디 올 뉴 코나는 차체를 키우고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최근 디 올 뉴 코나를 시승하면서도 1세대의 결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선 실내 공간은 4인 가족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2세대 코나는 전작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를 각각 145㎜, 60㎜ 늘이며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을 확보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했던 기어 레버는 신형 그랜저와 같은 운전대 오른쪽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덕분에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도 답답하지 않았다. 2열 공간은 소형 SUV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넉넉했다. 적재공간은 전작 대비 약 30% 이상 증대된 723L를 제공한다. 각자 차이는 있지만 4인 가족이 탑승해도 비좁거나 적재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또 운전석에서 둘러본 실내는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가로로 길게 연결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비워낸듯한 대시보드가 실내 개방감을 높였다.

코나의 주행 성능은 소형 SUV 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시승 구간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전남 목포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700㎞ 구간에서 진행했다. 도심과 고속도 국도를 두루 주행했다.

시승 모델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로 최고출력 198마력, 최대토크 27.0kgf·m를 제공한다. 코나는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했다. 도심속 일상주행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으며 고속도로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는대로 빠르게 치고 올라갔다. 고속 주행에도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흔들림이나 노면 진동도 크지 않았다. 다만 고속 주행시 아쉬운점은 A필러를 통해 들어오는 풍절음과 노면 소음은 불편했다.

장거리 주행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현대차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다. 소형 SUV임에도 다양한 보조 장치를 탑재했다. 고속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드(ACC)와 차로유지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자 앞차와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매끄럽게 주행을 이어갔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고속도로 구간 단속과 과속 카메라에 맞춰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 준다. 정속주행과 고속주행을 번갈아 가며 주행했지만 연비는 14.5㎞/L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복합연비(13㎞/L)를 훌쩍 뛰어넘었다.

현대차 신형 코나는 생애 첫 차나 신혼부부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첨단 기술을 선택할 경우 차값이 3000만원을 넘는다는 점은 조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코나의 판매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 ▲모던 2537만원 ▲프리미엄 2759만원 ▲인스퍼레이션 3097만원이며, 가솔린 2.0 모델 ▲모던 2468만원 ▲프리미엄 2690만원 ▲인스퍼레이션 3029만원, 하이브리드 모델 ▲모던 3119만원 ▲프리미엄 3297만원 ▲인스퍼레이션 3611만원부터 시작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GS칼텍스, 여수에 청정수소 허브 구축 나서

한국남동발전과 탄소중립사업 맞손
생산한 청정수소 여수산단 공급 예정

GS칼텍스와 한국남동발전은 8일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청정수소 관련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이상규 한국남동발전 안전기술본부장과 김정수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GS칼텍스와 한국남동발전이 청정수소 밸류체인 확대에 나선다.

GS칼텍스는 8일 경남 진주시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청정수소 생산, 공급, 활용과 기타 탄소중립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정수소는 수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하지 않거나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칼텍스는 청정수소 생산설비 구축 및 운영사업과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사업 역할을 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수소·암모니아의 도입 및 혼소 활용 등 발전 설비 구축과 운영사업을 맡기로 했다.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양사는 여수 수소허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국내 주요 수소 생산자로서 축적한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정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생산한 청정수소를 여수산단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청정수소를 활용한 발전 설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이산화탄소 다배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여수 지역 내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양사 공동으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GS칼텍스의 탄소 감축을 위한 공동 사업 모델 발굴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도 탄소중립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고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 집중형 발전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GS칼텍스 측은 "양사의 협력은 정부의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국정과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엔솔 '에이블'-남동발전-탐라해상풍력발전

제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추진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LG에너지솔루션 사내독립기업 AVEL(에이블)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사내 독립 기업 에이블(AVEL)이 지난 7일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발전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3사는 해상풍력발전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관리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AVEL은 에너지 전력망 통합관리 기술(EA·Energy Aggregation)로 ESS 등을 운영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예측 제도 관련 행정 처리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탐라해상풍력발전은 풍력 발전 운영 데이터를 제공한다.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분산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기술에 주목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정확한 예측과 ESS와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EA 기술이 필수적이다.

AVEL의 EA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번 MOU는 국내 전력 수급망 안정화와 VPP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현태 AVEL 대표는 "지금까지 해상풍력에너지는 특성상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ESS에 저장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해상풍력에너지 발전량의 정확한 예측과 효율적인 활용·관리로 국내 전력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애플페이 도입 앞두고 '옐로 아이폰' 선봬

아이폰14 기본·플러스 14일 출시

애플이 옐로(노란색) 색상의 아이폰 14 기본·플러스 모델(사진)을 오는 14일 국내에 선보인다. 노란색상을 채택한 아이폰은 2019년 아이폰11 시리즈 이후 4년 만이다.

애플은 아이폰14 시리즈 가운데 일반과 플러스 모델의 노란색 버전을 14일부터 전 세계 동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해 9월 출시된 모델과 사양은 물론 가격까지 동일하다. 일반 모델은 125만원, 플러스는 135만원부터 시작한며 출고가는 ▲128기가바이트(GB) ▲256GB ▲512GB 등 저장용량에 따라 상이하다. 앞서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 ▲블루 ▲퍼플 등 색상은 출시된 상태다. 아이폰14 옐로는 노란색 알루미늄 측면과 유리 뒷면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전 주문은 국내를 비롯한 미국·중국·일본 등 60개 이상 국가에서 오는 10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된다. /허정윤 기자

LGU+ '아워게임 : LG트윈스' 30일 첫 공개

STUDIO X+U 제작 티빙 오리지널

LG유플러스는 자사 콘텐츠 제작 전담 조직인 'STUDIO X+U'가 제작한 티빙 오리지널 '아워게임 : LG트윈스'가 30일 첫 공개된다고 8일 밝혔다.

티빙 오리지널 아워게임 : LG트윈스는 LG트윈스의 2022년 시즌을 기록한 스포츠 다큐멘터리다. 한국 스포츠 사상 최다 누적 관중 3200만명을 기록한 인기 구단이자, 역대급 전력으로 28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린 LG트윈스의 '리얼한 1년'이 아워게임 : LG트윈스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LG유플러스는 아워게임 : LG트윈스 제작을 위해 지난 1년간 LG트윈스를 밀착 취재했다. 한 구단의 시즌 전체를 담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100여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총 144개 경기, 약 2500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촬영 분량만 1.2 페타바이트로, 이는 4K(UHD)급 영화 1만 3200편, 미의회 도서관 78개 분량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다. /채윤정 기자

법인 지급결제 가능성에 증권사 '들썩'… 직접 수혜 기대감

자산운용 효율성 ↑… 경쟁력 강화
급여이체 등 신규 서비스 연결 호재
"증권사 규모 따라 입장 다를수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증권사 CEO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논의되면서 지급결제 여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빅테크 등에 대해서도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일 개최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과의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서비스 관철을 중장기 성장 비전으로 꼽기도 했다. 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인 지급결제는 10여 년간 증권업계 숙원사업"이라며 "그동안 분담금도 4000억원 가까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만 허용하고 법인만 허용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지급결제를) 은행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금, 네트워크도 다 갖추고 있는 대형 증권사가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오는 6월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증권사를 통해 급여 이체를 할 수 있으며, 제품 판매대금 이체, 협력업체 결제와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계좌로 개인은 자금 송금과 이체가 가능하지만, 법인은 은행의 가상계좌를 반드시 거쳐야만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다. 고객들 입장에서도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다양한 금융권을 통해 월급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로 증권사는 법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왔다. 업계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여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법인 고객 서비스를 확대해 기업금융(IB)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CMA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이용하면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형사의 경우 법인 고객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지급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허용하려면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에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맞지만, 중소형사는 혜택이 적을 것"이라며 "대형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투입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잘 나가는 2차전지株… 수주 가능성 살펴야

증권업계, 관련주 추가 상승 전망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 관심 가져야"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는 정책 수혜 및 전기차 시장의 성장 지속 등으로 2차전지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단기 급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날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날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2차전지 소재 대표주인 포스코케미칼은 전 거래일보다 0.96% 오른 26만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포스코케미칼은 전날 장중 27만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난 6일 전 거래일보다 19.17% 상승한 21만70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에도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대비 1.70%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전기차 판매 감소 우려로 조정받았던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테슬라의 중국 판매 호조, 대형계약 소식, 공매도 물량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쇼트커버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대규모 수주가 이어짐에 따라 2차전지 관련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업체별로 수주 가능성이 달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창현 연구원은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는 3월에도 유럽·북미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일부 종목의 급등한 주가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정책 모멘텀 소멸 이후 단기적 조정을 감안하면 개별 기업의 실적과 밸류에이션(평가가치)에 기반해 업종 내 상대적 주가 부진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종목들에 관심을 두는 등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상황으로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수주 확대 기대감이라는 호재와 메탈가격 하락이라는 악재가 맞서는 국면에서 전방 수요에 대한 고민만 덜어준다면 긍정적인 투자 환경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벤트 시기와 규모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3월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관희 기자 wkh@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오른쪽 세 번째)이 미국 텍사스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발주처 인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L이앤씨

DL이앤씨, 美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첫 삽'

GTPP 기공식… BIM 등 첨단기술 적용

DL이앤씨가 미국 텍사스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Golden Triangle Polymers Project)'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는 미국 쉐브론 필립스 케미컬과 카타르 에너지의 합작 법인인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가 발주한 사업이다. 세계 최대인 연간 100만톤 규모의 폴리에틸렌 생산 유닛 2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오는 2026년 상업 운전이 목표다.

DL이앤씨는 지난해 7월 이 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 미국 현지법인인 DL USA가 미국 건설사인 자크리 인더스트리얼(Zachry Industrial)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DL이앤씨는 모듈러 및 BIM(건설정보모델링)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이번 프로젝트 수행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

안랩·나무기술 등 국민의힘 테마주 제자리

"가치 상관없이 등락, 투자 주의해야"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테마주'들이 직전까지 요동친 가운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주가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원래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창업한 안랩은 전거래일 대비 500원(0.68%) 오른 7만3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안랩은 이날 중에만 오전에만 음전과 양전을 반복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안랩은 장 초반 전일 종가 대비 3% 가까이 내린 7만100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이내 두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7만6700원까지 크게 치솟았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안랩은 올 들어서 안 후보의 당 대표 출마 소식과 함께 크게 오른 바 있다. 안 후보가 당 대표 출마에 나서기로한 지난 1월9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6만7100원에 불과했던 안랩은 이후 급등하면서 월말까지 39.34% 9만35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후 전당대회 당일인 이날까지도 별다른 반등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7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안 후보의 또 다른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써니전자 역시 주가가 크게 오른 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연초 2560원에 불과했던 써니전자는 지난달 1일 60% 이상 오른 4135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써니전자 역시 이후 별다른 반등없이 내림세가 이어졌고, 이날도 전일 대비 35원(1.26%) 내린 2735원에 장을 마쳤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 관련주로 언급되는 주식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김 후보의 관련주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나무기술이 거론된다. 이들 회사 내부 감사 및 사외이사가 김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관련 종목으로 엮어왔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과 나무기술은 지난 1월에 크게 급등하면서 연초 대비 각각 28%, 91% 이상 크게 올랐다. 그러나 이날까지 고점 대비 25% 가량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만큼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영석 기자 ysl@

현대엔지니어링 # DR콩고 렘바임부 정수장 준공

하루 3.5만t 정수… 40만명 주민 공급

현대엔지니어링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에서 '렘바임부 정수장 1단계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DR콩고 수도 킨샤사 남동부 렘바임부 킴반세케 지역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안남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무톰보(Mutombo David) DR콩고 상수도공사 사장, 조재철 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대사, 이상범 농어촌공사 감리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9년 7월 해당 사업을 착공 했으며, 지난해 8월 통수식을 갖고 정수된 물을 생산 및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약 반 년 만에 정수장 이외 배수지 등 부대시설을 건설해 종합 시운전과 발주처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및 운영지원까지 최종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렘바임부 정수장은 이번 1단계 사업 준공으로 하루 3만5000톤의 정수된 물을 생산해 29㎞에 이르는 송·배수관을 통해 약 40만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향후, 2·3단계 사업에서는 정수장 물 처리 용량, 배수지 저장 용량 및 송·배수관 시설 등을 확대한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하루 약 20만톤의 정수된 물을 생산해 약 100만여 명 이상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환 기자

버스 속 소소한 재미 버스족(族) BUS JOK

버스 매일 탑승하시나요?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물합니다.

[버스족 이벤트 참여 방법]

1 서울시내버스를 타고
YapTV 속 컨텐츠를 본다.

2 영상 속 **QR코드**를 촬영한다.
※버스족 앱의 QR촬영 카메라만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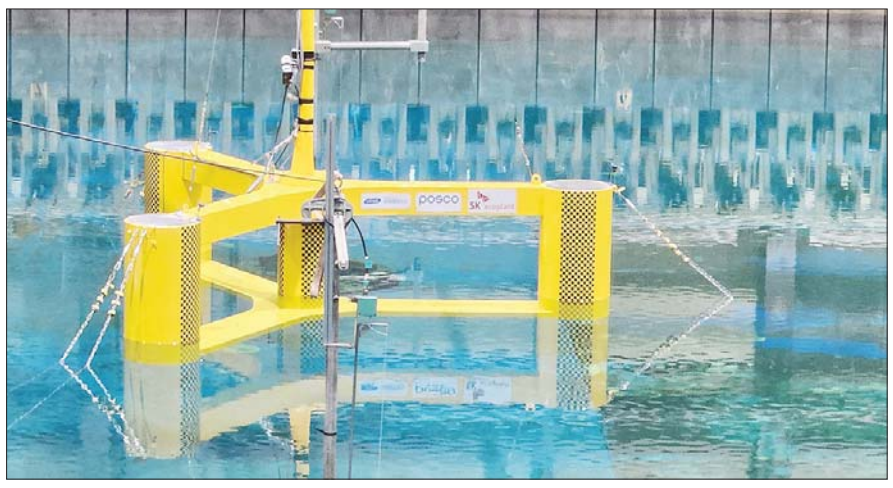
3 이벤트 참여하면
[**다양한 브랜드**] 선물이 쏙!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버스족**을 검색하세요.

국내개발 'K-부유체' 국제인증… 해상풍력 시장에 도전장

포스코-SK에코플랜트, 공동개발
전문 인증기관 DNV서 인증받아

바다에 부표처럼 뛰워 전기 생산
2027년 1분기 상용운전 개시 목표


포스코가 SK에코플랜트와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 공동 개발 및 실증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6일 대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열린 수조실험에 공개된 'K-부유체' 36분의1 축소 모델 (폭 약 2m, 높이 약 1m) .

포스코와 SK에코플랜트가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를 공동 개발하며 친환경 해상풍력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21년부터 'K-부유체(K-Floater)' 공동개발에 착수해 지난 7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전문 인증기관인 DNV로부터 기본설계 인증(AIP)을 받았다.

부유체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 구조물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지면에 고정하는 고정식 해상풍력과 달리 풍력발전기를 바다 위에 부표처럼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람이 더 강한 먼 바다에 설치해 전기생산 효율이 높고 수심이 깊은 곳에도 조성이 가능해 입지 제약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해상 풍력발전을 포함한 친환경 풍력에너지 시장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 기준 육·해상 풍력발전 목표치는 2021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34GW 수준이며,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는 전체 해상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2030년까지 18.9GW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14년부터 부유체 연구를 진행해 온 포스코는 양사 협약에 따라 부유체의 기본설계 및 성능향상강재를 적용한 경제성 향상 기술개발을 맡고, SK에코플랜트는 해저터널, 시추선 등 해상 엔지니어링 경험을 기반으로 상세설계를 포함한 실증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기본설계 인증을 받은 부유체는 KAIST, 제주대학교, 마린테크인 등 국내 산학 기술로만 설계된 최초의 'K-부유체'로, 도크 수심이 얕은 국내 제작사들의 여건을 고려해 운송과 설치가 용이하도록 부유력을 증가시키는 기둥형으로 디자인했다. K-부유체는 10메가와트(MW) 이상 대형 터빈 설치가 가능한 반잠수 부유식 모델로 약 40m/s 태풍을 버틸 수 있으며, 2m/s 조류, 10m 파고 등 극한의 자연환경에서도 구조적·기능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K-부유체는 지난해 9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3주간의 부유체 성능 수조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해당 실험을 통해 유럽에서 제작하는 부유체와 동일한 기술 성숙도가 확인됐다.

보통 부유체 1기에는 MW당 200~300톤의 강재가 사용된다. 포스코는 K-부유체에 포스코의 풍력용 성능향상 특화강재인 균일 항복강도 제품, 내피로강, 고연성강 등을 적용해 부유체의 전체 중량을 감소시키면서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포스코가 개발한 내피로 후판제품을 10MW 이상급 부유식 해상풍력에 적용 시 강재 사용을 약 5% 이상 절감하면서 피로수명을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 단위당 생산비용(LCOE) 절감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수여식에 참석한 포스코 김성연 철강솔루션연구소장은 "해상풍력 기술 독립을 위한 한국형 부유식 해상풍력 공급 체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동남해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포스코의 우수한 그린어블 윈드 강재 공급 및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솔루션 제공으로 고객사인 SK에코플랜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포스코는 SK에코플랜트와 긴밀히 협력해 상세설계 및 제작·시운전 단계를 거쳐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을 완성하고 그 최초 모델을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하고 있는 동남해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우선 적용해 2027년 1분기 상용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69시간 근무 허용' 크런치모드 부활 vs 업계 활기 '이견'

〈야근·특근 등 일컫는 말〉

근로시간 개편 게임업계 목소리
"워라밸 바로잡기 위해 많은사람 희생 52시간제 시행 이후 차츰 개선"

"업계 특성상 탄력적 근무제에 무게 수익성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

최근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게임업계 사이에선 크런치모드가 부활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지난해 신작 부재로 침체된 게임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기존 주 52시간제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회사의 방침에 따라 바쁜 기간에는 탄력적인 근무를 하고 이후에는 연차, 월차 등을 활용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게 골자다.

다만 52시간의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게임업계는 야근, 특근 등을 일컫는 '크런치모드'가 부활해 또 다른 사회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발자들의 처우에 대한 이슈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난해 신작 부재로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근로시간 개편이 오히려 게임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판교, 구로의 등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프로젝트 마감을 위해 밤낮없이, 휴일 없이 일하며 과로가 당연시됐던 몇 년 전이 떠오른다는 지적이다.

소형 게임사 개발자는 "게임·IT업계에 워라밸 문화가 조성된 건 최근 5년간 과로사나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사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했다. 이번 노동시간 개편안을 접하고 그 때가 생각났다. 또 다시 크런치 모드가 발생할까 걱정하는 개발자들도 많다"고 비판했다.

크런치모드란 그간 게임업계에 이어오던 악습으로 개발 및 기획자들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후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차츰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어 해당 개편안은 업계 특성상 개발자들에게만 화살이 쏠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개발자들이 게임만 개발했다고 해서 끝난게 아니다.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완성도 높은 수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고 리스크에 대한 대응에 날 선 채로 대응 자세에 있어야 한다"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가중도 같이 늘어난다. 이에 단기간에 신작이나 개발을 해 내야 하는 소리없는 강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휴가를 이어서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등 개인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대형게임사와 중소형게임사간 간극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개발자는 "중소 게임사들은 개발 팀이 없는 곳도 많다. 대형게임사야 대응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마련해놨겠지만 중소게임사들은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휴가를 이어서 가는 등 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나. 업계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얘기. 시장 현실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내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관련 각 게임사 내부의 방침이 잘 구축된다면 오히려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업계 특성상 탄력적 근무제도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신작 출시 부재로 인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이번 개편안이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는 매게체가 될 수 있다"며 "게임사들은 신작에 따라 승패가 극명히 갈린다. 곧 개발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 게임사 마다 노사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박찬구 회장 '檢 고발'

공정위, 친족 보유 4개사 누락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사진)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년~2021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자산총액 기준이 원상복귀되면서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로 2018년~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두 회사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 목적이 훼손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고발지침에 따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쌀 재배면적 줄인다

정부, 벼 농가에 논콩 등 전환 유도
쌀값 인상, 재정 4400억 절감 효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논콩이나 가루쌀 등으로 전환 재배를 유도, 쌀 재배면적을 3만7000헥타르(ha) 줄인다. 이 경우 쌀값은 5% 오르고, 정부의 시장격리에 드는 재정 4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쌀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37만5000톤) 증가하며 지난해 쌀값이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45만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해 10월 초 4만6994원까지 회복됐으나, 이 과정에서 농가 어려움과 시장격리에 따른 재정 손도 크게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헥타르(ha)로 보고 작년 72만7000헥타르 대비 3만7000헥타르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당 뺏더니 매출 효자… 식음료업계 '제로' 제대로 통했네

과당·포장재 줄인 기업들

식음료업계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친환경을 실천하는 MZ세대의 가치소비 트렌드에 맞춰 설탕을 뺀 '제로 슈거'음료와 , 라벨을 없앤 '무라벨'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불필요한 과당과 포장재를 줄여 건강과 환경보호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제로 음료 대표 주자는 롯데칠성음료다. 롯데칠성음료는 음료 부문에서 제로 칼로리 상품을 지속 확대하고, 주류 부문에서 제로슈거 소주 '새로'를 앞세워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롯데칠성음료는 16년만에 소주 '새로'를 선보였다. 출시 한 달만에 입소문을 타고 680만병 판매고를 올린데 이어 지난달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병을 돌파했다. 높아진 인기에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 상권에서도 입점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매출도 지난해 9월 24억원에서 12월에 76억원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월에도 93억원 수준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의 지난해 4분기 소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연간 소주 매출은 전년 대비 21% 늘었다. 하이트진로도 제로 슈거로 리뉴얼된 '진로이즈백'을 출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밀키스 제로'를 출시하며 음료 제품도 확대하고 있다. 밀키스 제로는 기존 250㎖에 31g 들어가던 당류를 1g로 줄인 덕에 열량도 130㎉에서 8㎉로 줄었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밀키스 제로는 1차 선판매 당시 1시간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소비자들의 요청에 2차 판매도 진행했으나 역시 20여분 만에 조기 품절됐다. 현재는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일찍이 동아오츠카는 2010년 제로칼로리 사이다 '나랑드사이다'를 출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꾸준히 맛과 품질을 리뉴얼해오고 있다. 기존 제로칼로리 사이다 나랑드사이다에 상큼한 맛을 더한 '나랑드사이다 파인애플' '나랑드사이다 그린애플' 2종을 최근 출시했다.

식음료업계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와 제로 칼로리 음료 선호에 맞춰 제로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만특화 의료기관 365mc 전은복 영양사는 "제로칼로리 ·슈거 음료의 경우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가 첨가되는데 기존 음료보다 열량 자체가 적다보니 체중과 혈당 관리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몸에 덜 해롭다고 해서 물처럼 많이 마시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감미료의 단맛이 식용을 자극해 다른 음식의 섭취량을 늘릴 수 있기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는 인공감미료가 포도당을 흡수 시켜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하기도 했다. 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마르타 야니나 페피노 영양학 교수의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 중 수크랄로스가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료업계는 제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잉크 등의 사용도 줄여나가고 있다.

코카콜라는 국내에서 라벨을 제거한 '라벨프리'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탄산음료 최초 무라벨 제품인 '씨그램 라벨프리'를 시작으로 먹는샘물 브랜드 '강원평창수'와 '휘오 순수'를 무라벨 제품으로 선보였다.

이후 전 세계 최초로 코카-콜라 컨투어 병 디자인을 적용한 무라벨 페트 제품 '코카-콜라 컨투어 라벨프리'를 한국에서 출시했다. '스프라이트', '태양의 식후비법 W차', '토레타!' 등의 제품군에도 무라벨을 적용하고 플라스틱 경량화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동원F&B도 플라스틱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동원F&B는 몸체는 물론 뚜껑에도 라벨을 없애 음용 후 바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동원샘물 라벨프리'를 제작됐다. 제품명을 페트병에 레이저 인쇄 방식으로 새겨 넣어 인쇄 과정에서 잉크를 사용하지 않아 재활용성이 높다.

페트병의 무게 자체도 크게 줄여 친환경 요소를 강화했다. 동원샘물 500mL 페트병의 경우 2013년 19g 대비 26% 줄어든 14g으로 업계 최경량 수준을 맞췄다. 올해도 약 4g을 추가로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저감화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ESG 경영이 대두되면서 인지도 있는 제품은 무라벨로 출시하는 추세"라며 "또 비닐 및 플라스틱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리배출이 필요하지 않아 소비자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가 진로이즈백을 제로슈거로 리뉴얼 출시했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제로 슈거 소주 '새로' 선보여

하이트진로
기존 제품 '진로이즈백' 리뉴얼

코카콜라
'라벨프리' 제품군 지속적 확대

동원F&B
몸체·뚜껑 무라벨 제품명 각인

"KT개혁 핵심 셀프 추천 이사회 바꿔야"

시민단체·KT새노조 기자간담회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권에서도 "최근 KT 대표 인선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관심을 모은다. 또 KT에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셀프 추천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KT새노조는 8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총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KT의 민영화 이후 반복되는 CEO의 문제는 CEO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현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KT는 내부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주총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사가 돼 '셀프이사회'라는 얘기를 듣는다"며 "KT는 지배주주가 없고 소액주주들이 주를 이루는 구조로 주주 구성이 돼 있어, 이사회가 구성되면 소유권에 근거한 견제가 쉽지 않다. KT의 이사회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변호사)은 "KT와 같이 주인이 없는 기업은 주인 노릇을 하려는 대리인들이 활기를 치는 문제가 있고 외부 세력이 관치 문제를 일으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으로는 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제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이다.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통해 주주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국민은행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종화 KT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는 "KT가 현대차그룹 및 신한은행과 사업적인 제휴를 맺고 본인들이 보유한 주식과 상대방의 주식과 교환을 했다"며 "이렇게 안 하면 상호제휴가 일어나지 않나?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채윤정 기자 echo@

KCC글라스, 아이와 반려동물 위한 바닥재 출시
KCC글라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 적합한 PVC 바닥재인 '숲 도담'을 리뉴얼 출시했다. /KCC글라스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공공기관에 과태료

개인정보위, 12곳에 39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3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5개 기관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개인정보 오남용의 근원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계정 관리 부분을 중점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마련한 범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코웨이, 대용량 '프라임 스탠드 정수기' 선봬

냉수 7.1L, 온수 3.6L, 정수 10.4L
식당이나 학교 등에 적합한 용량

코웨이가 용량이 넉넉하고 위생적인 '프라임 스탠드 정수기'를 출시했다.

8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냉수, 온수, 정수를 대용량으로 설계해 식당, 관공서,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용량은 냉수 7.1L, 온수 3.6L, 정수 10.4L다.

프라임 스탠드 정수기는 물 저장 탱크와 물이 나오는 파우셋을 99.9% 살균해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스스로 UV 살균' 기능을 탑재해 위생성을 높였다. 물 저장 탱크를 12시간마다 4시간씩, 파우셋은 6시간마다 45분씩 UV 살균한다.

손쉽게 분리 세척 가능한 파우셋, 손으로 만질 필요 없는 전자식 레버 등을 적용해 위생성도 강화했다. 출수 파우셋 팁 등 오염에 민감한 주요 부품들은 36개월마다 무상 교체도 진행한다.

프라임 스탠드 정수기는 RO멤브레인 필터 시스템을 탑재해 물속에 녹아 있는 중금속부터 바이러스까지 총 48가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을 발휘한다.

이 제품은 가로 32㎝ 크기로 어떤 공간에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오트밀 베이지 색상을 적용해 공간 속에 잘 어우러진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한 경제적인 제품이다. /김승호 기자

상암 하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링' 서북권 랜드마크 세운다

63빌딩보다 높은 180m규모 조성
매립지 퇴적층 체험 전시관 갖춰
월드컵공원과 연계 접근성 강화

마블 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공간을 넘나들 때 생성하는 '포탈'처럼 생긴 대관람차가 쓰레기매립장을 복원해 만든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생긴다. 서울 동남권 어디에서나 잘 보여 길잡이별 북극성 역할을 하는 잠실롯데월드타워 같이 서북권에도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인 거대 대관람차 '서울링'이 들어서는 것.

서울시는 8일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마포 하늘공원에 서울형 대관람차인 '서울링'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20세기엔 시카고가 세계 최초의 대관람차 '페리스휠'을, 21세기엔 두바이가 세계 최대의 대관람차 '아인두바이'를 선보였다"면서 "2027년에는 서울시가 세계 최대 고리형 대관람차 '서울링'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링 예상도. /서울시

시는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심축과 바퀴살을 없앤 반지 형식의 대관람차를 고안해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차원 이동시 만들어내는 '포탈' 혹은 영국의 가전제품 제조사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와 비슷한 형태다.

서울링은 96m 높이 하늘공원 위에 180m 규모로 지어진다. 지면에서의 높이는 276m로, 264m인 63빌딩보다 12m 높다. 이 한강 조망 시설은 정원 25명인 캡슐 36개로 구성된다. 하루 약 1만 2000명씩 300일간 운영을 가정하면 연간 350만명이 이용 가능한 수준이다. 캡슐을 통유리로 마감해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 사계절 변화하는 서울과 한강의 특별한 매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또 시는 대관람차 하부 공간에 1978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반입된 쓰레기 매립지라는 난지도의 역사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매립지 퇴적층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전시관(엘리베이터 형태)을 조성하고, 인근 월드컵공원과 연계되는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링 일대의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는 새로운 이동수단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교통의 결절점이자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월드컵경기장과 서울링을 곤돌라로 연결하는 것을 포함, 평화의 공원 등 주변과의 보행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지하 연결통로에는 무빙워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시는 서울링을 탄소배출 제로 시설로 건립해 운영키로 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와 서울링에 부착된 태양광 집열판을 통해 자체 생산되는 전기에너지 등을 활용해 대관람차를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링 조성 사업비는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서울시 재정 여건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서울링 건립을 수익형 민자사업(BTO·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관람차의 수요 추정치가 얼마냐'는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 '런던아이'나 '싱가폴 플라이어'의 사례로 봐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 중 15~20%가 서울링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금년 상반기 중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하면 2024년까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검토와 민자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2025년 6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한다는 목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제 한강의 진정한 가치를 살릴 대관람차를 조성할 시기"라며 "휴식과 여가 문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한강의 매력을 살린 대관람차를 만들어 수변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함이 있는 한강을 선사함으로써 서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견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지자체 주도 대학 지원사업 시범지역 선정

경남, 경북, 대구 등 7곳 발표
2025년 전 지역에 도입 계획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라이즈(RISE)'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이다.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라이즈 시범지역 공모는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공모 대상인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신청하는 등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시·도의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범지역은 지자체의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지역 균형을 고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등의 다양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는 2025년 라이즈 도입을 위해 신청서를 바탕으로 추진체계 마련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시범지역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해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연내 설치하게 된다. 더불어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계획(2025~2029)은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7월경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만약 지역의 라이즈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시·도와 함께 라이즈 모델을 만들어 가는 한편,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시범지역 외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라이즈 도입을 위한 설명회, 연수 등을 실시해 2024년 말까지 17개 시·도의 라이즈 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시, 난임 지원에 2123억 지원 확대

30~40세 여성 최대 200만원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2123억원을 들여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기로 했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며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는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 챙기기에 나서기로 했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순천향대학교

기업 재직자 입학식

순천향대학교는 기업체 재직자로서 주말을 이용해 학사과정에 도전장을 낸 신입생 19명과 편입생 21명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2023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순천향대는 지난 4일 창의라이프대학 주관으로 교내 유니토피아관 1층 3D극장에서 학과별 지도교수와 신·편입생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체 재직자로 학사과정을 시작한 신·편입생을 위해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학사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이어졌다.

/신하은 기자 godhe@

성인·어린이 평생학습 용산도서관 운영

청렴문화 캠페인 프로그램 함께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청 용산도서관은 청나비와 함께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 소통하는 청렴문화 캠페인도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성인 프로그램은 서예, 미술, 영어회화, 일본어, 통기타, 문학반 등 총12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오는 27일부터는 독서논술지도사 2급 자격과정도 개설 할 예정이다.

인기 프로그램은 7세~초등2학년 대상 두뇌활동 프로그램과 6~7세의 유아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꼽았다. 그 외 초등 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등 5개 강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용산도서관 내부 모습. /용산도서관

/신하은 기자 godhe@

위례선 '무가선 트램' 시험 운행 손잡아

서울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TRAM·노면 전차) 방식으로 도입되는 위례선의 품질 확보와 제도적·기술적 상호 협력을 위해 손잡는다.

서울시는 8일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간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위례선) 성공 개통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례선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협력 방안 논의 ▲철도종합시험운행 계획수립과 시행 ▲차량기술, 형식승인제도 개편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위례선 트램은 작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오는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무가선 트램 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호 협력을 통해 위례선 건설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위례선 트램의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사업자 모집!!

27년 전통의 대한홍삼(주)에서
건강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품(기능 · 이윤)군**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솔루션 지원**
  - · 웹카탈로그 제공
  - ·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맞춤형 창업 및 판매노하우 교육**
- **홍보 지원 (TV광고 등)**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취급상품
- · 다양한 브랜드 홍삼
-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의류 / 화장품

⊙ 온라인 [웹카탈로그] 제공
- · 매장과 소비자 간 견적 딜 시스템
- · 영업사원 관리 및 고객 홍보 시스템

⊙ 온라인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 11만 여 개의 인기 & 특가상품

창업 안내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창업 (매장, 영업장, 센터)

⊙ 무점포 · 무자본 창업

⊙ 웹카탈로그 · 복지몰 창업

창업 비용

업계 최저 창업비
+ 최대 혜택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koreahongsam.co.kr

30년 역사 햇터그룹

BH 대한홍삼[주] 브레인TV (주)햇터라이프 (주)한삼장홍삼

문의 : 02.2163.0411
대한홍삼(주) 최원석
010.2286.5687

안동시, 그린바이오 육성… 헴프산업 거점도시로 발돋움

권기창 시장
"지역경제 용광로 뜨겁게 달군다"
한국 대마산업 세계 4번째 규모
대마 난치병 치료제 전환 전망

권기창 안동시장이 임하 헴프 재배현장을 방문했다.

안동은 2020년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해 의료용 헴프 산업화의 문을 열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기관을 유치하고 전방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민선 8기 권기창 안동시장은 투자와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의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헴프 등 바이오 분야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기관, 기업체가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 청년들을 바이오 산업 인재로 양성해 장래성 있는 기업에서 미래를 꿈꾸며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51조원의 녹색 금광 헴프산업, 전 세계 그린러시 주목

대마 씨앗이 몸에 좋은 슈퍼푸드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마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대마는 마리화나와 헴프로 구분되는데, 특히, 헴프에 있는 CBD, 즉 칸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이 뇌전증 등 신경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이를 활용한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에 이어 대마 산업으로 자금이 몰리며 '그린러시'라 불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조 원으로 추산되며,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7번째로 대마 규제 완화가 포함되면서 국내 대마 산업화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 안동은 국가 바이오 산업 발전 선도할 최적의 도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캐나다 다음 4번째로 대마 생산량이 많다. 국내에서는 천여 년 동안 '길쌈'의 명맥을 이어온 안동포의 본고장인 안동이 대마 주산지이다.

이제 삼베 원료로 쓰이던 대마가 난치병 치료제 등으로 변신할 전망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마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부분적 특례를 부여받아 그동안 규제로 인해 불가능했던 헴프의 미수정 암꽃과 잎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배와 CBD 추출, 제조 및 수출 그리고 헴프 관리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총괄 주관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에이팩, 한국콜마(주), ㈜유한건강생활 등 30개의 국내 기업과 4개 기관이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산업화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헴프 특구 지정 이후, 3년 차에 접어든 사업

지난해 정부 주최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이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이로써 실증특례 연장을 받고 특구사업자들의 중단없는 R&D사업 추진 및 전주기 이력관리를 통한 보안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 바이오 산업의 미래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창업 및 벤처 기업 입주공간인 ▲공공형 기업플랫폼 구축하고, 연간 2000명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 훈련기관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안동이 바이오생명산업 거점도시로 자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올해 안동은 바이오 기업과 기관들의 연구·생산 활동 지원에 이어 입주공간 마련, 전문가 양성,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헴프 규제자유특구 안동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의 거점도시로서 미래 헴프 산업 발전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하동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통과에 따라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동군

하동, 농촌공간정비 힘 받는다

군, '농촌공간계획법' 통과
용도별 특화지구 지정 가능

하동군이 농촌지역도 장기계획을 세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농촌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그동안 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 부재로 일부 농촌 마을의 경우 공장, 축사, 위험물 시설 등이 관리되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세워지는 등 저개발·난개발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주 여건 악화로 인구 유출 및 지역 소멸 위기 심화로 이어져 농촌다움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으로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구획화 개념을 도입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기능에 알맞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를 포함하며 지자체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하동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정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지역도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하동만의 농촌 특색을 반영한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교육청 '따뜻한 행복교육' 확대 운영

17일까지 접수 200개교 신설 운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생들의 긍정적 마인드 함양과 행복 경험 지원을 위해 올해 '따뜻한 행복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오는 17일까지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첫 해인 2022년에는 행복 실천학급 1000학급과 행복교육 교원학습공동체 20팀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현장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행복 실천학급 1683학급과 교원학습공동체 40팀을 운영했다. 이러한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반영해 2023년에는 '행복 실천학급' 1800학급, '행복교육 학습공동체' 50팀으로 확대하고 '따뜻한 행복학교' 200교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복 실천학급'은 ▲행복교과서를 활용한 행복 수업 운영 ▲교육과정 및 학교 특색 사업 연계 행복교육 실천 ▲학급 구성원이 직접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급 프로젝트 등의 운영이 가능하며, 학급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행복교육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복수업 사례 발굴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 연구 등으로 운영되며, 팀당 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따뜻한 행복학교'는 2023년에 신설되는 영역으로 ▲학교 단위 행복 버스킹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교 자치 활동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활동 등 학교 단위에서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주제로 운영되며, 교당 100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경북=이상호 기자

울산시,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탄력

울산대공원 2026년 완공 목표

울산시가 추진 중인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이하 전문과학관)은 전국 최초의 탄소중립분야 핵심 과학기술 전시 및 보급·확산을 위한 시설이다.

사업비는 총 487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울산대공원 구(舊) 유류부대 부지 내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울산시는 전문과학관이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은 만큼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아동 안전과 권리인식 교육 진행

대구시가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지역아동센터대구지원단과 함께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아동을 돌보는 기관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 아동 권리 인식 증진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2021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함평군

'함평 한 달 여행하기' 모집

전남 함평군이 장기여행 체험 프로젝트 '2023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 참가자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본 프로젝트는 함평을 관광하며 군에서 제시한 홍보과제를 수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자격은 만 18세 이상 광주·전남 지역 외 거주자로 함평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는 7~30일 동안 자유여행을 하면서 여행후기 작성, 나만의 함평 숨은 명소 발굴하기 등의 여행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여행을 하며 모든 과제를 수행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 1일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함평(전남)=양수녕 기자

전라남도

대학생 도전과제 실현 돕는다

전라남도가 지역 대학생이 도전 과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2023년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참여 팀을 모집한다.

전남지역 대학생이나 전남에 주소를 둔 광주권 대학 재학생과 멘토를 포함해 4명 이상으로 팀 단위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20개 팀 내외를 선정, 팀당 최대 1천만 원의 프로젝트 수행비를 지원한다. /전남=양수녕 기자

고흥군

사이버 농업인 교육생 모집

고흥군은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을 위해 2023년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 양성과정' 교육생을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4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 1회(목요일), 총 15회 과정으로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습득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고객관리 ▲온라인상 마케팅 전략 ▲미래 소비환경 트랜드에 맞는 농장소개서 작성 기술 ▲농산업 e-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이다.

신청방법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정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산업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고흥(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리테일 비즈니스 핵심은 고객”… 편의점 운영 노하우 공유

르포 | 이마트24 ‘딜리셔스 페스티벌’ 가보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깜짝방문
“입맛 잡는 업태개발, 성공의 관건”

34개 협력사 참석, 상생관 등 구성
네컷사진 등 경영주가 상품 체험
AI기반 점포운영 시스템 설명도

AI(인공지능) 미디어 보드 앞에 50대 남성이 서자 몇 초 지나지 않아 최근 인기를 끄는 위스키를 홍보하는 그림이 떠올랐다. 그가 떠나고 20대 여성이 앞에 서자 또 재미있고 재치가 느껴지는 포장지의 과자가 떴다. 미디어 보드 아래 작은 AI 카메라가 1,2초에 불과한 찰나에 앞에 선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를 분석해 그가 흥미를 가질 상품을 띄운 영상이다.

“정말 미래 SF 영화가 여기있네!” 행사 진행 직원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감탄을 터뜨렸다.

이마트24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이마트24 상품전시회 ‘딜리셔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딜리셔스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열린 이마트24의 상품전시회로, 2023년 사업 전략 및 상품 트렌드, 매장운영 노하우를 경영주와 공유하는 자리다. 첫 상품 전시회를 통해 상품 및 디지털 혁신 전략을 경영주와 공감하며 미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34개 협력사에서 참석하며 플러스관, MD컨셉관, 상생관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첫날 행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현장을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정 부회장은 이날 한 시간 가량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백화점 대표, 허병훈 신세계부회장 등과 함께 최첨단 편의점 기기들과 PB 신상품 등을 둘러봤다.

정 부회장은 현장에서 “한국 편의점은 일본을 성공모델로 단기간에 발전했지만, 이제는 일본 편의점 답습에서 벗어나 누가 더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업태를 개발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테일 비즈니스의 핵심은 고객이고, 고객과 유통업체가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상품과 서비스”라며 “고객과 상품에 더욱 광적으로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할 때 더 큰 도약의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은 최근 인기를 끄는 네컷 즉석사진 부스와 포토스팟, 다양한 이벤트로 채워져 편의점 경영주들이 직접 상품을 체험하고 트렌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재미도 느낄 수 있게 꾸려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이마트24 상품전시회 딜리셔스 페스티벌’에서 경영주 레시피 콘테스트 출품 식품을 시식하고 있다. /뉴시스

딜리셔스 페스티벌 현장에서 편의점 경영주가 이마트24의 모바일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서현 기자

IT서비스관에서는 가맹점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 기반 점포 운영 시스템 및 PDA, 무인출입인증기, 3D매장, 모바일앱 등을 직접 보고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중장년층 비중이 큰 편의점 경영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이 직접 1:1로 설명하고 이용을 돕기도 했다. 일부 기기와 서비스는 실치비와 운영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기기와 서비스는 무상이었다.

이마트24 표준 매장도 현장에 설치됐다. 실제로 점포에 다양한 상품을 진열하거나 기기를 설치했을 때 고객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가 취급 중인 상품들과 PL/NB 상품들도 한자리에 모으고 최신 유통업계 트랜드도 소개했다. 실제로 먹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안내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협력사들도 자사 상품 홍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자사의 상품을 제공하고 시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직접 원하는 색상의 구성품을 골라 나만의 볼펜을 조합할 수 있도록 한 모나미와 자신이 담은 만큼 과자 무게를 맞추면 이를 증정하는 오리온 등은 특히 참가자들의 호응을 끌었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이마트24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객들에게 혜택과 재미를 선사하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상품 개발과 도입으로 이마트24의 상품·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딜리셔스 페스티벌을 통해 향후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 가맹점과 협력회사, 본사 직원들이 소통함으로써 이마트24가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24는 지난해 매출 2조원(2조1181억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6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중소업체 식품안전관리 역량 키운다

롯데안전센터 ‘세이프티 아카데미’
온·오프라인 교육 전과정 무상 진행

롯데중앙연구소 식품안전센터(이하 롯데안전센터)가 오는 30일부터 중소업체 식품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교육인 ‘롯데 세이프티 아카데미(LOTTE Safety Academy, LSA)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14년 차를 맞은 LSA는 식품안전 관리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 과정이 무상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약 30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는 등 업계 동반성장을 이끄는 기업 ESG 실천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올해 LSA 교육과정은 ▲개정 정책 및 법규 ▲이물/방충 관리 ▲식품안전 심사 ▲해썹(HACCP) ▲글로벌 식품안전 트렌드 ▲식품공전 이해 ▲식품표시광고법 ▲중대재해처벌법 ▲감사(Audit) 전문과정 관련 주제로 구성됐다.

직접 촬영한 복습 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Q&A 센터를 운영하는 등 수강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롯데안전센터 교육 담당자는 “파트너사를 비롯한 많은 식품업체 품질 담당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중소업체의 품질 인력 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업계 식품안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수강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교육 신청 접수는 상생누리 및 오는 4월 말 리뉴얼 오픈 예정인 롯데중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롯데안전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식품사 최초로 롯데 파트너사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상 무상 교육을 지원하며 업계 내 큰 관심을 받았다.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더해 3M,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의 공동 진행 특강을 실시하는 등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百 ‘365 리사이클 캠페인’ 30만명 참여

전국 16개 점포서 일년간 진행중

현대백화점이 ‘나눔의 일상화’를 가치로 기부 캠페인을 펼쳐 30만명 이상의 고객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전국 16개 전 점포에서 진행 중인 ‘365 리사이클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이 지난 2월 말 기준 20만5000여명을 기록했다.

365 리사이클 캠페인은 전 점포에 설치한 캠페인 전용 부스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건과 자원을 상시 기부 받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헌옷과 신발, 가방 등 재판매가 가능한 물건, 투명 페트병, 종이류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받는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편한 시간에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면 된다. 한 달 기준 기부 물품 수에 따라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 최대 9000포인트도 지급받는다.

1년 간 고객이 기부한 옷, 신발, 페트병 등은 80만여 개에 달한다. 기부 물품은 친환경 식품용기 및 쇼핑백으로 재탄생해 현대백화점 점포에서 활용되고 있다. 100여 톤 가량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옷, 신발 등 재판매를 통해 조성한 약 1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은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식물을 전달하는 ‘교실 숲 조성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목동점 7층에서 모델들이 ‘365 리사이클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그룹

뚜레쥬르, 남해마늘 고로케·꽈배기 선봬

남해군과 상생협약… 특산물 활용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뚜레쥬르가 남해마늘을 활용한 신제품 2종을 선보이며 지역 농가와의 착한 상생을 이어간다.

CJ푸드빌은 작년 남해군과 상생 협약 체결에 따라 지역 대표 특산물인 남해마늘로 만든 제품을 출시해오고 있다.

남해마늘을 활용해 출시한 갈릭 브레드 시리즈에 이어 올 봄 입맛을 돋우어줄 고로케와 꽈배기 2종을 추가로 선보이며 남해마늘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소비자들에게 지속 전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은 해풍을 맞으며 자라 알싸한 맛이 강한 남해마늘의 맛과 풍미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CJ푸드빌

홈플러스

아동콘텐츠 매출 급상승

홈플러스가 엔데믹(풍토화)가 본격화한 후 아동 콘텐츠 전반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지난 2월 26일 6개월 간 아동 테넌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테넌트는 쇼핑몰의 공간을 활용하는 입점 브랜드를 뜻한다.

관련 매출이 급증한 데에는 앵커 테넌트의 역할이 컸다. 홈플러스 가양점과 마산점에 입점한 대형 키즈카페 ‘몬스터파크’는 이용시간이 무제한으로 가족 단위 고객을 끌어오는 핵심 매장 역할을 했다. /김서현 기자

팔도, 감칠맛 더한 ‘팔도비빔장 저칼로리’

기존제품 대비 칼로리 15% 수준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팔도비빔장 저칼로리’를 출시한다.

팔도는 이번 신제품 출시로 저칼로리 소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팔도비빔장 제품 라인업도 기존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신제품은 어느 음식과도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팔도비빔장을 저칼로리 트렌드에 맞춰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100g당 칼로리는 39㎉다. 이는 기존 자사 제품의 15% 수준이다.

매콤달콤한 오리지널 팔도비빔장 맛에 사과식초로 감칠맛도 더했다. 새콤하고 가벼운 맛은 시원한 면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체중 관리용 식품으로 알려진 곤약면, 해초면, 닭가슴살 등과 함께하면 다이어트용 식단이 된다. /신원선 기자

SK플라즈마, 인니에 3000억 규모 혈액제제 공장 짓는다

외국정부 포괄적 사업권 첫 사례
연간 100만리터 원료 혈장 규모
혈액제제 자급화 가능해질 전망

SK플라즈마 인도네시아 혈액제제 공장 조감도.

혈액제제 사업을 진행하는 SK플라즈마가 인도네시아에 3000억원 규모의 혈액제제 플랜트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SK플라즈마는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혈장 분획 공장 건설과 관련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2019년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위탁생산, 기술수출, EPC, 현지 운영까지 외국 정부의 포괄적 사업권 낙찰을 거둔 첫 사례로 꼽힌다.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 제조·설비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혈액제제 제조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를 대상으로 플랜트 기술 수출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성사된 플랜트 수출 규모는 약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에 달한다.

SK플라즈마의 혈액제제 공장은 연간 100만리터의 원료 혈장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혈액제제 자급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의 시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한 의약품으로, 과다 출혈에 따른 쇼크,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혈우병 등 다양한 분야의 필수 치료제로 사용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알부민이나 면역글로불린 같은 혈액제제가 광범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기도 하다.

SK플라즈마는 SK에코엔지니어링과 함께 EPCM(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관리) 형태로 공장을 건설하고 혈장 분획과 관련한 기술도 함께 이전할 계획이다.

SK플라즈마는 현지에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공장 운영을 포함해 사업권·생산·판매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현지화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관련 규정에 따라 독점 공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SK 플라즈마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수입되는 혈액제제 전량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혈장으로 생산해 국민들에게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 투약 80% 돌파

강스템바이오텍 '퓨어스템-에이디'
2024년 내 국내 품목허가 승인 목표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하는 세계 최초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주' 개발이 임박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퓨어스템-에이디주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투약환자가 250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퓨어스템-에이디주 임상 3상은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 치료를 목표로 국내에서 총 308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제까지 전체 목표대상자의 80% 이상인 250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완료됐고, 기존 치료제에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서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회사는 2분기 내 투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 탑라인 데이터를 확보해 2024년 내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JP모건 컨퍼런스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행사를 통해 퓨어스템-에이디주에 관심을 보인 빅파마와 라이선스 아웃, 해외지역 판매 등을 추진하고자 이번 임상 3상 진행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퓨어스템-에이디주는 탯줄 혈액에서 채취한, 성체줄기세포 중 가장 건강하고 어린 줄기세포를 원천으로 한다. 주목할 점은 특정인자만을 억제해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닌 PGE2, TGF-beta 등과 같은 면역조절인자를 분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에 관여하는 TH2 세포, 비만세포, B세포 등 여러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자의 면역기전을 정상화하여 기존에 없던 근본적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회사측은 영하 70도 이하로 유통되는 동결제형으로 우수한 세포활성을 가진 치료제를 세포은행 구축 완료를 통해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 특성과 대량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기존 아토피 치료제와 비교해 연간 환자당 치료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유방재건 수술 후 괴사 줄일 가능성 찾아

이대목동병원
천공지 혈관 위치 따라 혈액공급 좌우

우경제 성형외과 교수

박진우 성형외과 교수

국내 연구진이 유방재건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지방괴사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다. 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 우경제 교수와 박진우 교수 연구팀은 유방재건수술 시 사용하는 천공지 혈관의 위치에 따라 이식조직의 혈액순환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 최근 SCI 국제학술지인 글랜드 수술지에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중 복부피판을 이용하는 방법인 심하복벽 천공지 피판 시행 시 피판에 포함되는 천공지 혈관 위치를 분석해 지방괴사를 감소시킬 방법을 찾은 것이다.

연구팀은 이대목동병원에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심하복벽 천공지 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시행 받은 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인도시아닌 그린 혈관조영술'을 통해 피판 내 천공지 혈관의 위치에 따른 혈액 공급 양상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유방재건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지방괴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부조직에 혈류를 공급하는 천공지 혈관의 위치에 따라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피판의 부위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심하복벽 천공지 피판술 시행 시 피판에 포함시키는 천공지 혈관의 수직 위치에 따라 피판에 대한 혈액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연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피판의 혈액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세경 기자

정관장

'내 생일에 효도해요'

KGC인삼공사는 'NEW 생일문화' 전개를 위해 '생일이 된다, 어른이 된다' 캠페인을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관장 생일 캠페인은 자신의 생일날이 축하와 선물을 받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부모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로 바꾸자는 뜻을 담고 있다. 정관장은 내 생일에 가장 아팠던 어머니, 어깨가 무거워졌을 아버지 등을 위한 감사의 선물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생일을 맞은 정관장 멤버스 고객에게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됨은 물론,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정관장 홍삼정(240g), 홍삼톤골드(30포), 에브리타임(30포), 화애락진(30포)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개당 1만원의 가격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정관장은 새로운 생일 문화 제안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엄마편', '아빠편' 2편을 선보이며 모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야기를 담은 보편적인 가족애를 울림있게 표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차바이오텍 오상훈 대표가 8일 열린 'CHA 바이오 헬스케어 데이'에서 차헬스케어 사업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차바이오그룹

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시장 공략

美 CDMO 규모 4배 확장

차바이오그룹이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과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미국 현지에서 2024년까지 생산용량을 4배로 확장해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차바이오그룹은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CHA 바이오·헬스케어 데이' 행사를 열고 이와 같은 국내외 사업전략을 공개했다. 이 날 행사에서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 앤드류 어리지 최고사업책임자(CCO)가 향후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마티카 바이오는 미국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장 진출을 위해 차바이오텍이 세운 자회사다. 2022년 텍사스에 500 ℓ 규모의 CDMO 시설을 준공한 이후 2022년 하반기에만 8건의 CDMO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도 다국적 빅파마 4곳을 포함해 40개 이상의 기업과 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마티카 바이오는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매출을 늘리기 위해 1공장의 두 배 이상 규모의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2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500 ℓ 규모의 생산 용량이 2000 ℓ 까지 확대된다./이세경 기자 seilee@

물류비 상승에 햄버거값 줄줄이 올라

버거킹 와퍼 6900원→7100원
맘스터치 싸이버거 4600원으로

버거킹이 10일부터 원자재 및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가격이 인상된 메뉴는 버거류 32종, 사이드 및 음료 15종 등 총 47종이며, 평균 인상률은 2.0%이다. 대표적으로 와퍼가 6900원에서 7100원으로, 갈릭불고기와퍼가 7300원에서 7400원으로, 와퍼주니어가 4600원에서 4700원으로, 프렌치프라이가 20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른다.

버거킹 관계자는 "원자재 및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며,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버거킹은 앞으로도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맘스터치도 7일부터 전체 78개 품목 중 4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00~400원씩 올렸다.

대표 품목인 버거류의 평균 인상률은 5.7%이며, 시그니처 메뉴인 '싸이버거' 단품이 4300원에서 4600원, '그릴드비프버거'는 4900원에서 5100원, '불고기버거'가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조정됐다.

앞서 지난 2월 롯데리아가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5.1% 인상했으며, 맥도날드도 5.4% 가량 가격을 인상했다. 노브랜드와 KFC도 지난달 일부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

/신원선 기자

100+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기조강연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강연. 1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강연. 2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강연. 3

은퇴 준비와 재테크 전략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2023. 3. 22 (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철저한 방역 하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사전 등록은 필수 입니다

■ 축 사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개 회 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 기조강연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교수

■ 강 사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metro metro경제

KB금융그룹

튀르키예 구호 성금 6억 기탁

KB금융그룹(윤종규 회장·사진)이 튀르키예 긴급구호 및 지진 복구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1만 3377명의 마음을 담아 3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렇게 모금된 국민들의 성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 적립해 총 6억원을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액 현지 구호 및 피해복구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DGB대구은행, 무료급식 행사… 800명 식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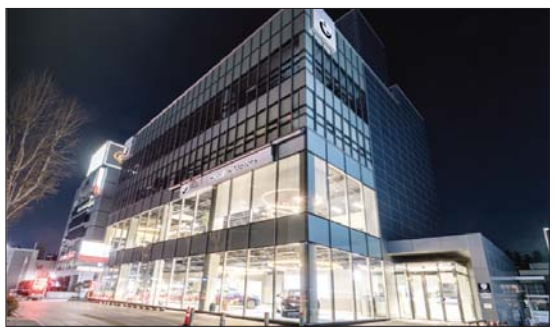
DGB대구은행은 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무료 급식 행사를 진행하고 무료 급식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DGB대구은행 임직원 및 DGB대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20여명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해 약 8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DGB대구은행

에어부산, 지역사회 혈액난 극복 팔 걷어

에어부산은 지난 7일 부산시 강서구 에어부산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헌혈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회사 설립 초부터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헌혈 봉사활동에 참가한 에어부산 직원이 헌혈을 하고있다. /에어부산

벤틀리, 플래그십 전시장 '벤틀리 큐브' 선봬

벤틀리는 8일 서울 청담동에 '벤틀리 큐브' 오픈 행사를 열었다. 벤틀리 큐브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컨템포러리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브랜드 콘셉트 디자인을 적용한 플래그십 전시장이다. 새로운 '임베디드 다이아몬드' 디자인과 나뭇결을 살린 수직적 패턴 우드베니어 등을 볼 수 있다. /벤틀리



한독모터스, BMW 서대구 전시장 오픈

BMW 공식딜러사 한독모터스는 BMW 서대구 전시장 및 패스트레인 서비스센터와 BMW 서대구 중앙 서비스센터를 새로 오픈했다고 8일 발혔다. BMW 서대구 전시장은 대구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BMW 최신 CI도 적용했다. /한독모터스

가해자는 뒷짐… 굴욕적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방안

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초현실주의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에 비하면 대개는 그저 비루한 생존법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역사에 죄를 짓는 참사가 '결단'으로 둔갑하는 현실에 비하면 거론될 깜조차 안 된다. 근래만 해도 그렇다. 이게 과연 나라인지, 어느 나라 행정부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정부가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재원은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케이티(KT)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16개 한국 기업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정작 배상을 해야 할 일본 전범 기업은 빠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일본 쪽 주장과 판박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은 없었다며 줄곧 부정해왔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한 기부금 조성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으로 요약되는 해당 방안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궤변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가 사활을 걸 만큼 시급한 것일까. 난 아니라고 보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 인정과 정당한 배상, 사죄가 우선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할 미국에겐 아시아 동맹인 한·일 관계 개선이 다급할지 몰라도 일본이 먼저 침략 침탈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건설적 관계는 이뤄지기 어렵다. 우리가 아닌 일본이 풀어야할 과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은 물론 강제동원 문제까지 부정한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위안부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를 재촉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일본 쪽의 '성의 있는 조처'를 얻어내야 한다는 태도였다. 그런데 돌연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배경으로 한 윤 대통령의 조급함으로 인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기업의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조처'는 끝내 무산됐다.

제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일제 치하 35년간 이어진 고통의 역사를 아무 일 없듯 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국민 동의부터 구했어야 옳다.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자기 마음대로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

가해자는 뒷짐 지고 피해자가 먼저 해법을 고민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본 식민지배를 받은 것이 우리가 못나서였다는 식의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라는 점에서 머잖아 조공까지 바치겠다는 말도 하지 싶다.

/미술평론가

롯데,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확대

부산시-박람회유치위 MOU
엘시티 타워 등 인프라 제공

롯데가 8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부산광역시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이성권 부산시경제부시장, 이갑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이 참석했다.

롯데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 준비 지원을 위해 보유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이며,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부산과 서울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제공하는 대표 인프라는 해운대 랜드마크 '엘시티(LCT)' 타워의 260실 규모 럭셔리 호텔 시그니엘 부산으로, 방한 할 현지실사단의 숙소로 제공된다.시그니엘 부산은 해운대와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미포항, 달맞이 고개, 동백섬 등 부산의 다양한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도 우수하다.

부산지역 700여 곳 롯데 계열사 사업장에도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현수막과 부산 엑스포 엠블럼을 함께 건다. 부산 근무 롯데 직원 1만 여명도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아 부산 엑스포 배지를 착용하고 근무할 예정이다.

롯데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부산시와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갑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이성권 부산시경제부시장. /롯데지주

롯데홈쇼핑과 롯데월드는 현지 실사단 방한 일정에 맞춰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서울 광화문 부산 엑스포 유치 행사(가칭)'도 참여한다.

각 사의 대표 캐릭터 벨리곰과 로티, 로리의 대형 조형물 포토존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지 실사단이 광화문에 방문하는 4월 3일에는 각 캐릭터들의 시민 포토타임과 롯데월드의 '여성 밴드' 공연도 펼친다.

한편, 롯데는 전사 차원의 '롯데그룹 유치지원 TFT'를 조직하고 그룹 역량을 결집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이성희

◆**안동시** ◇4급 승진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이재남

◆**서울대병원** △병원관리지원실장·기획조정실장 조영민 △교육인재개발실장 강현재 △의료혁신실장 이재영 △대외협력실장 박도중 △정보화실장 정창욱 △의학역사문화원장 김주성 △융합의학기술원장 김경환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단장 박철기 △진료운영실장 임종필 △간호본부장 최완희

부음

▲남기순씨 별세, 박형준(GC녹십자생산부문 음성공장 본부장 빙부상)씨 빙부상 =안양장례식장 8호실 B1층, 9일 VIP실로 이실 예정, 발인 10일 오전 5시 수원 연하장. 031-456-5555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 '고액 납세의 탑' 수상

박찬구 "성실납세 통해 사회환원 기여"

〈금호석화그룹 회장〉

그룹 내 두 계열사 동시선정

(왼쪽부터)신우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와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가 고액납세의 탑 선정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이 성실 납세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 받았다.

8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지난 3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원 이상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금호석유화학이 '3000억원 납세의 탑', 금호피앤비화학이 '2000억원 납세의 탑'에 각각 이름을 올렸으며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와 신우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가 각 회사를 대표해 탑을 수여 받았다.

그룹 내 두 계열사의 동시 선정에 대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본업에 충실히 임해 성과를 창출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사회 환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효성티앤씨 '리젠 되돌림' 캠페인 시즌2 개시

페트병 1만 5000개 수거 목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티앤씨가 임직원들과 '리젠' 원료인 페트병을 모았다.

효성티앤씨는 8일 '리젠 되돌림' 캠페인 시즌2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사내에서 임직원이 페트병을 모으면 리젠을 적용한 가방을 증정하는 내용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로 진행된다.

효성티앤씨는 지난해 본사 사업장에서 처음 캠페인을 시작해 약 9000개 페트병을 모은 바 있다.올해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1만5000개 수거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소나무 약 70그루가 1년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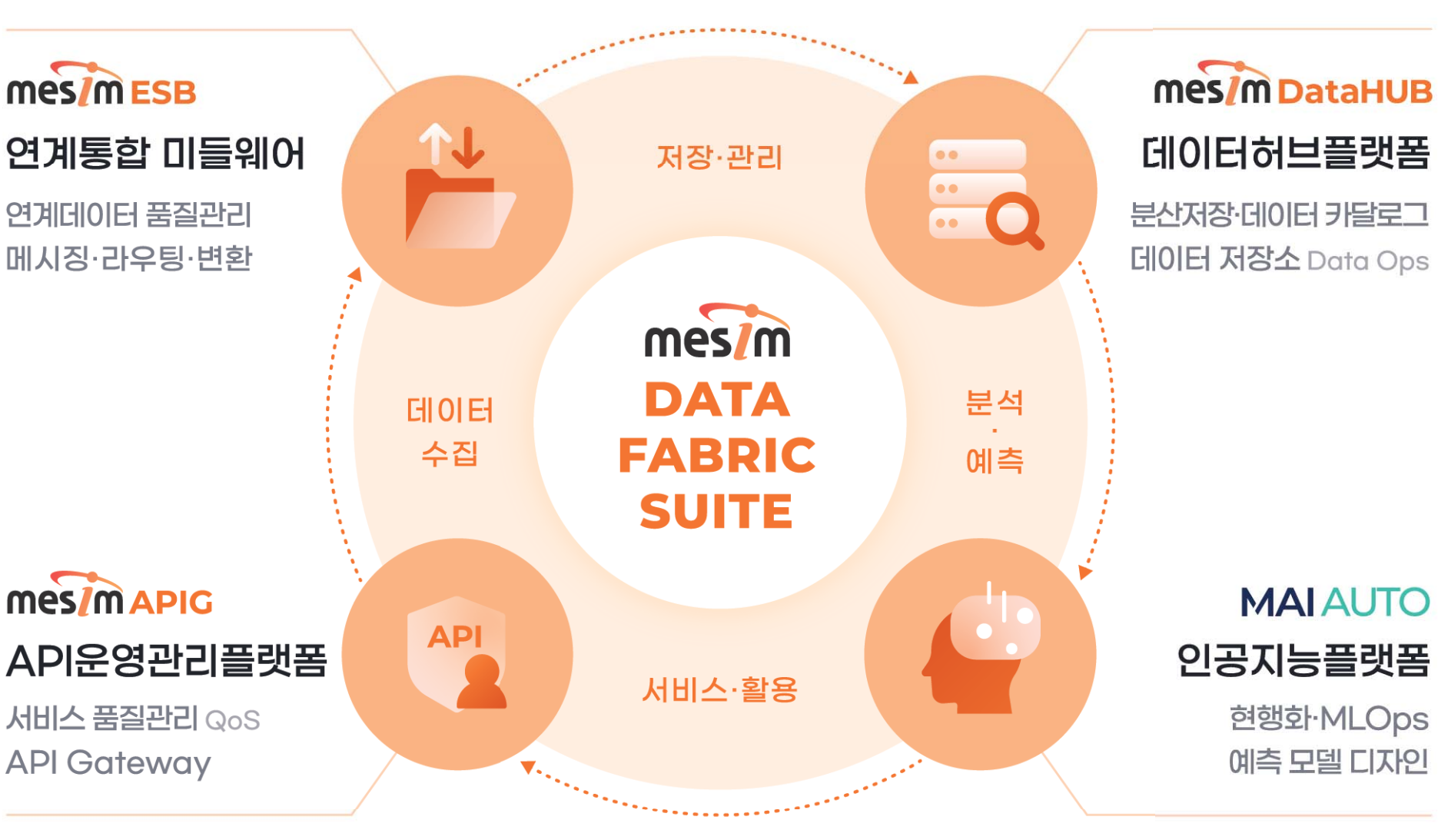
효성티앤씨는 리젠으로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동반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전사 임직원이 힘을 모아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해 친환경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웅 기자 juk@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METABUILD INC. 메타빌드

본 사 0664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메타빌드빌딩 연구소 06708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연구소
T 02.598.3327~8, 3340 F 02.598.3329 E support@metabuild.co.kr www.metabuild.co.kr

안하느니만 못한 국힘 전당대회

윤 휘 종 의
잠시 쉼표

국민의힘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 달 가량의 대장정을 마치고 8일 마침내 끝났다. 지난 1월 31일 후보자 등록 공고 이후 2월 2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뒤 13일부터 제주합동연설회 등 일곱 번의 합동연설회를 거치며 한 달 가량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런데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나보다. 주요 당대표 후보자들 간의 경쟁은 과열을 넘어 분열의 씨앗마저 잉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김기현·안철수·황교안·천하람 등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당의 미래나 보수의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친윤'이냐 '비윤'이냐의 싸움에 매몰됐다. '윤심(尹心)', 즉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를 놓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윤심'을 찾기 위해 삼만리를 헤매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니, 과연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전당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진흙탕 싸움'의 수위는 올라갔다. 김기현대 안철수·황교안의 대결구도는 같은 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에 달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네거티브 공세를 그만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

이들의 대립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에 대통령실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절정에 달했다. 심지어 안·황 후보 측은 김 후보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패할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대통령실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며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발하기도 했다. 강 수석이 '대통령실 행정관의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 요청'에 개입했다며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이다.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핵심 측근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천하람 후보도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행위는 범죄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 후보가 대표가 되어도 정당성이 큰 흠집이 생겨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김기현 후보는 이런 안·황 후보 측의 공세를 '내부 총질'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안·황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쯤 되면 웬만한 막장드라마 저리 갈 정도다. 집권여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자는 '땅투기꾼'으로 몰렸으며, 여당과 호흡을 맞춰야 할 대통령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정선거질서를 해쳤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패한 후보들이 과연 그 결과를 제대로 인정할지조차 의문인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당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내년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오히려 분열과 분당의 가능성만 더 높아지게 생겼다.

집권 여당의 분열은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도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라 할 수 있는데,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저런 모습이면 정당정치가 자리잡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국정운영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부장 yhj@metroseoul.co.kr

공개하면 싸질까

기자 수첩
허 정 윤
〈산업부〉

석유업계는 오는 10일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석대법' 시행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막혀서 도입되지 못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석유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격 공개 자체가 '담합'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미 정유사들은 제품 대상별, 업체별 전국 단위로 유가 평균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역 단위까지 공개하게 되고 시장 지배력이 강한 정유사 위주로 가격 치킨 게임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치킨 게임 후에는 경쟁에 패배한 주유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결국 남은 주유소들이 다시 '암묵적인 가격 올리기 담합'에 들어간다면 겉보기에는 투명성이 확보된 것 같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정유사들은 제품가격을 책정 시 국제 유가에 따라서 운송비, 저유비, 품질보정비 등만 붙여 팔기에 제품가를 더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세금 비중이 높은 국가 상위 10위 그룹 안에 들어가는데 가격은 낮은 수준"이라며 "그만큼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에 제품 마진을 최대한 붙이지 않으면서 공급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정유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국가와 시민은 어려운데 정유사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선을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수출 효자'로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2022년도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액은 570억3700만 달러(한화 약 73조7400억원)로 집계돼 기존 최고치인 2012년 532억51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이 말인 즉슨, 정유사들은 업이기에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내에 팔 기름을 수출할 때 수익에 유리하다면 그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비싼 주유소는 안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도매가를 공개하면 '싼 주유소가'생기는 게 아니라 '비싼 주유소'마저 귀해질 수 있다.

서민 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일이지만, 그 방향이 오히려 시장 경제를 망가뜨려 서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zelkova@

오늘의 운세

3월 9일 (음 2월 18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세월이가니 책이 나의 스승이다. **48년생** 지는 잎을 보면 내 신세 같아서 서글프다. **60년생** 퇴직이 시련처럼 보이나 좋은 일이 있다. **72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 **84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

소 **37년생** 투자했다가는 패가망신. **49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으니 희망을 갖자. **61년생** 위기를 기회로 전환. **73년생** 근거 없는 칭찬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85년생** 일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인 사람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

호랑이 **38년생** 효(孝)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50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아직 많다. **62년생**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듯 사랑도 마찬가지. **74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86년생** 음주 후에는 활동자제.

토끼 **39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51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63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75년생** 신용 없이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87년생** 가난보다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용 **40년생** 눈높이를 낮추면 일을 쉽게 구한다. **5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64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76년생**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88년생** 대인관계에서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

뱀 **41년생** 종일 즐거움이 모여든다. **53년생** 소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65년생** 감정이 안정되어야 마음이 편하니 여색을 멀리해보라. **77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측은지심이 먼저이다. **89년생** 바라는 일이 없다면 되는 일도 없다.

말 **42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54년생** 친구와의 대화를 주의. **66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78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 **90년생** 눈이 빠지게 고대하나 창업은 시기상조 5월 지나서.

양 **43년생**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건강해서 감사. **55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67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79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 **91년생**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원숭이 **44년생**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 **56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68년생** 마른논에 물들어 오듯이 고민이 일시에 해결. **80년생** 오후 음주 운전에 조심. **92년생** 외국행은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

닭 **45년생**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일이 풀린다. **57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69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81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겠다. **93년생** 인생을 꽃피우려거든 가정을 먼저이루는 것이 복을 증진.

개 **46년생** 하늘이 부여해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58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로 변한다. **70년생** 노후대비는 젊어서부터 해야 할 것. **82년생**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94년생** 양보와 포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데.

돼지 **4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 **59년생** 뿌린 대로 거둔다. **71년생** 새벽길에 운전조심. **83년생** 불행하면서 부자인 것이 나은지 행복하면서 가난한 것이 나은지는 본인이 생각할 것. **95년생**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미래이니 계획을 갖고서.

김상회의 四季

이름은

출산율이 낮아져서인지 아기 이름을 짓겠다고 오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각인되어가는 터라 내심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아기 이름 상담이 있게 되면 필자도 탄생에 대한 기쁜 마음이다. 며칠 전 모처럼 막 태어난 손자이름을 짓겠다며 방문한 H여사가 내어놓는 아기사주를 보니 계묘년 갑인월 출생의 남아로서 목木기운이 왕한데 비해 건강 재운에 도움을 주는 오행이 부족한 지라 이를 보완하여 작명했다.

음양오행원리에 의한 사주명리학이 발달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에 거는 기대가 각별하다. 특히 혈연·혈족에 남다른 의미가 깊은 터라 같은 성씨 내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쓰는 공통돌림자를 사용하여 항렬까지 따져볼 수 있게 이름을 짓는다. 이런 관계로 어떤 돌림자를 썼느냐에 따라 나이 지긋한 이가 젊은 친구에게 삼촌 또는 할아버지격이 된다며 친족 존칭의 공손한 모습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사주학 경시 풍조도 있었고 한글이름이 유행인 적도 있어서 옛날만큼 성명학에 관한 관심이 적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좋은이름을 짓고자 정성을 쏟는다.

일반 서점가에는 한자이름을 지을 경우 가정집에서도 손쉽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성명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좋은 이름이란 사주명리학적 기반 위에서 작명하는 것을 으뜸으로 친다. 이것이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명학의 원조는 81수리로서 중국 송나라 때 사람인 채구봉선생으로 알려져 있다. 81수원도(八十一數元圖)를 만들어 한자의 획수에 의한 길흉을 설명한 것으로 이름을 짓고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힘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3	8		1			9		
6				8				
				3	9			
1								
	4	9				2		
		7					9	
5				4		6		2
					2		7	
						1		

8		9		6				4
	7				5		6	
2							3	
						4		
6								
	1						9	
			4					
	3	8			1		2	
1								9

정답

4	3	1	5	7	8	2	6	9
9	7	5	2	6	3	8	1	4
2	8	6	1	4	9	3	7	5
3	9	4	8	1	6	7	5	2
6	1	2	3	5	7	4	9	8
5	8	7	9	4	2	6	3	1
7	4	9	6	2	1	5	8	3
8	6	3	7	9	4	1	2	6
1	2	6	4	3	5	9	7	8

9	4	5	7	8	3	6	2	1
7	2	6	1	9	5	8	3	4
8	1	3	6	2	4	7	9	5
6	9	2	4	3	8	5	1	7
3	8	7	9	5	1	4	6	2
1	5	4	2	7	6	9	8	3
5	3	9	8	4	7	1	2	6
2	6	8	5	1	9	3	4	7
4	7	1	3	6	2	9	5	8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4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143호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라이프]
이마트24
경영주와 공유
'소통의 장'
L1

[바이오]
SK플라즈마
인도네시아에
혈액제제 공장 건설
L2

두바이에 GBC 개소… 중동·아프리카 진출 '전진기지'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영 중기부장관 등 현지서 개소식
개방형 공간, 특화프로그램 등 '개편'
美·中 등 총 12개국에 20개소 운영
中企 해외 진출 위한 핵심 거점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20번째로 문을 열었다.

두바이 GBC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GBC센터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두바이 현지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 류제승 전 UAE 대사, 문병준 두바이 총영사 그리고 두바이에선?제벨알리자유경제구역청(JAFZA) Abdulla bin damithan 대표(CEO)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두바이 제벨알리 경제자유구역에 자리잡은 GBC는 2006년 말 중진공의 두바이 수출인큐베이터(BI)로 시작했다.

현재 위치한 JAFZA18에선 수도 아부다비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총 403.8㎡(약 122평) 공간에 컨퍼런스룸, 소회의실, 공유오피스, 오픈형회의실, 창고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중진공에 따르면 두바이 거점에선 'UAE 의료인증 획득 및 제품개선 현지화' 지원 등을 비롯해 지역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Pre-BI 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입주기업들에 대한 분야별 맞춤 시장 정보 제공과 무역사절단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두바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를 시작으로 12개국, 20개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거점을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전환하고, 기존의 공간 제공 위주에서 각종 특화 프로그램 제공 및 현지 전문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킹 연결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GBC를 현재 입주형 독립공간→개방형 공유 공간, 보육 기능 중심→특화프로그램 제공, 현지 정부 협업 중심→현지 네트워크 다변화 방향으로 개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수 입주기업에게 독립공간을 독점 제공하던 방식에서 개방형 운영으로 네트워킹·협업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현지 네트워크 다변화를 통해 국내외 기업인의 연결거점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이 되는 '제2의 중동 붐'을 선도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중점 추진한다.

GBC(기존 BI)는 98년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북미에만 로스엔젤레스(LA), 워싱턴, 뉴욕에 4곳이 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러시아 모스크바, 일본 도쿄,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 각각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5928개사가 이 공간을 이용했고, 그동안 총 93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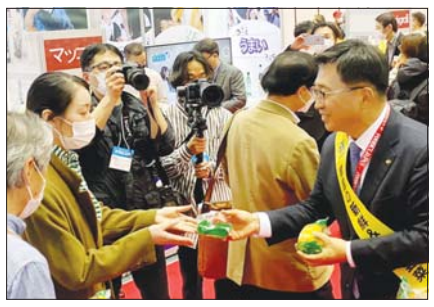
aT, 일본 시작으로 K-푸드 현장 세일즈 나서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 출범
바이어 간담회, 식품박람회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2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을 출범하고 직접 단장을 맡은 이후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목표 135억달러 달성을 위해 일본에서 첫 현장 세일즈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국식품 주요 바이어인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와 동일본수입유통협의회를 잇따라 만나 일본 내 K-푸드 판매 동향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한국 농수산식품 대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김 사장은 일본 도쿄 빅사이트 국제전시장에서 올해 48회를 맞은 '동경식품박람회 2023(FOODEX JAPAN 2023)'을 찾아 한국관을 살펴보고 행사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일본 현지인 대상으로 건강하고 우수한 K-푸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했다.



김춘진 aT 사장(우측 1번째)이 지난 7일 일본 'FOODEX JAPAN' 행사장 현장에서 한국 농수산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aT

한국관에는 김치, 인삼류, 음료 등 K-푸드를 수출하는 70개 업체가 참여해 일본 식품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다. 공사는 한국식품의 우수성과 현지에서 인기있는 수출유망 품목 등을 'K-STREET FOOD 홍보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에게 적극 알려 수출 영토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2022년 대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21억6000만달러로, 일본은 시장 잠재력이 큰 K-푸드 수출 2위 국가"라며 "올해도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홍보마케팅 전개 등 전방위적 수출지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제조 소기업 경영 지원

컨설팅, 기술지원 등 558억 규모 투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총 558억 규모다. 이번 1차 모집은 일반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친환경 기술·업종 영위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녹색기술 혁신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다.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세부지원 내용을 다각화했다. 진로제시컨설팅을 통해 회생 조기 진입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해 회생인가까지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참여 신청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고한 이후 혁신바우처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벤처협회, 벤처기업 미국 시장 진출 돕는다

한국SW협회·82스타트업과 맞손

벤처기업협회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82스타트업과 손잡고 국내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의 미주 시장 진출을 돕는다.

'82스타트업'은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이기하 대표가 주도해 결성한 비영리 커뮤니티로, 센드버드 및 몰로코 등 한국인이 창업해 미국에 본사를 둔 유니콘 5곳을 포함해 7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실리콘밸리내 한국 스타트업 모임이다.

8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내 우수한 벤처·소프트웨어기업의 미주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과 미주 기반 한국 스타트업 간 동맹을 통한 교류 증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마련했다.

두 협회는 협약을 통해 미주 실리콘밸리 한국 스타트업 모임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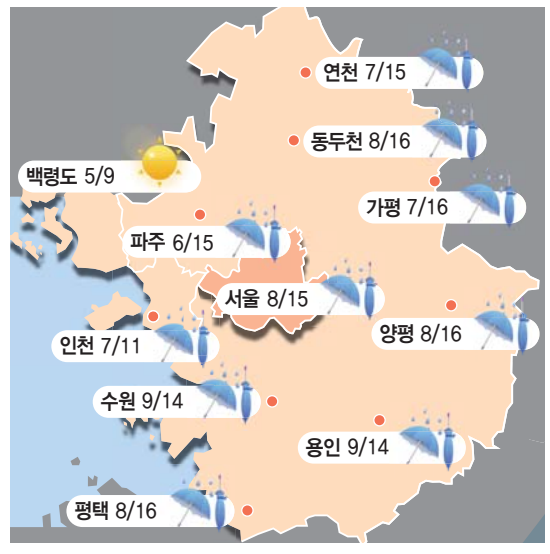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53 | 해짐 / 18:33

3월
9일 (木)
음력 : 2월 18일

수도권 날씨
8 ~ 15℃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손흥민, 돌아온 콘테와 골 도전…"모든 것 쏟겠다"
▲세리에A 우승 기대 김민재 "벽이라는 별명이 가장 좋아" /사진 뉴시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 입국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
▲프로축구 K리그1 1·2라운드 관중, 코로나 전보다 11% 증가

▲국강행군 펼친 WBC 대표팀…'부상 경계령' /사진 뉴시스
▲미국 야구 전문기자 "한국, 일본 꺾고 WBC 우승할 것"

SAMSUNG

Galaxy S23 | S23+ | S23 Ultra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S펜은 S23 Ultra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